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노엘 캐럴(Noël Carroll)의 비평이론에 기반한 중학교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문 형 은

노엘 캐럴(Noël Carroll)의 비평이론에 기반한 중학교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 연구

지도 교수 오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문 형 은

문형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1 월

위 원 장 _____ 이 민 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최 진 경 _____ (인)

위 원 _____ 오 희 숙 _____ (인)

국문초록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비평'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며, 음악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평 교육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비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제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급에는 고등학교급과 달리 음악비평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교과가 부재하며,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실제적인 음악비평 활동 보다는 감상 활동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음악에 대한 느낌 혹은 소감을 요구하거나 작품의 맥락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소극적 비평 활동만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급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비평이론들 중 노엘 캐럴(N. Carroll)의 비평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캐럴이 제시하는 예술비평 이론은 비평의 본질 및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비평의 구성 요소들을 명료히 제시하고 있다는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비평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닌, 유기적 관계로써 작용하므로 획일적 비평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음악비평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여러 학자들에 따른 예술비평 이론에 대해 탐색하였다. 둘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비평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비평 수업의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의 비평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노엘 캐럴의 예술비평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캐럴은 예술비평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들을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의 범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을 음악 비평에 상응하도록 재해석하고 각각의 기능과 상호 관계에 대해 고찰하여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넷째, 구안한 음악비평 모형을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제시하여 비평 교수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을 위한 제재곡을 선정하여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및 단계별 지도 계획을 적용한 수업 지도안을 구상하였다. 제재곡으로는 스메타나(B. Smetana)의 “나의 조국(Má vlast)” 중 ‘몰다우(Moldau)’ 와 쇤베르크(A. Schönberg)의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Mondestrunken)’ 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제재곡으로 하는 각각의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을 구상하여 음악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다.

음악비평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의 본질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음악적 경험과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음악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가 교육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음악비평 수업 발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치 있는 비평이론을 활용한 다양한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음악비평, 음악교육, 음악비평수업, 교수·학습 방안, 비평 모형
학 번 : 2020-2024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고찰 3

Ⅱ. 이론적 배경 6
1. 음악비평의 개념 6
2. 음악비평의 교육적 가치 8
3. 비평이론의 유형 11
4.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비평 교육 20
5.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 비평 활동 현황 24

Ⅲ.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 28
1. 예술비평의 정의 28
2. 예술비평의 대상 29
3. 예술비평의 기능 29
4. 비평의 부분들 30

Ⅳ. 음악비평 수업의 지도 방안 35
1.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을 적용한 음악비평 모형 구안 35
2.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구상 42
3.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51

Ⅴ.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 53
1. 음악비평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53
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 59

Ⅵ. 결론 79
1. 요약 79
2. 제언 81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목차

[표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감상영역의 내용체계표20
[표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음악 감상과 비평'의 내용 체계표 22
[표 3] 교과서별 감상영역 악곡의 문화권에 따른 분석 25
[표 4] 노엘 캐럴의 비평의 부분들 34
[표 5]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한 노엘 캐럴의 "비평의 부분들" 42
[표 6] 노엘 캐럴의 비평의 부분들 45
[표 7] 연주 형태 분류 기준 46
[표 8] 장르 분류 기준 46
[표 9] 맥락화의 교수·학습 내용 47
[표 10] 음악 요소별 교수·학습 내용 49
[표 11]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52
[표 12]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64
[표 13]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65
[표 14]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1차시 수업 지도안 66
[표 15]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2차시 수업 지도안 69
[표 16] 비평문 작성에 대한 평가 기준 72
[표 17]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1차시 수업 지도안 73
[표 18]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2차시 수업 지도안 75
[표 19] 그룹 토론에 대한 평가 기준 78

그림 목차

[그림 1] 펠트만의 미술비평 단계 17
[그림 2]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에 따라 구안된 음악비평 모형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처음으로 '비평'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공통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 3 개의 영역 중 감상영역에 모두 비평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비평 활동을 음악 감상과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평'이라는 용어의 출현은 음악비평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음악교육에서의 음악비평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 학습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들과 음악적 경험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비평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의 본질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음악적 경험과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음악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중학교급을 포함하는 공통 교육과정에는 '비평'이라는 개념만 등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으며 비평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제시 또한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판되는 14 종의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음악비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하기 보다는 감상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소극적인 비평활동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학교급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음악비평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음악 수업에 비평활동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중학교급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인 음악비평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비평이론들 중 노엘 캐럴(Noël Carroll)의 비평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캐럴은 미학과 예술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예술비평 또한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현역 평론가로, 그가 제시하는 예술비평 이론은 비평의 본질 및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비평의 구성 요소들을 명료히 제시하고 있다는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음악비평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을 고찰하여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및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구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적용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여 음악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비평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여러 학자들에 따른 예술비평의 유형을 고찰한다.

둘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음악비평 교육과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의 비평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및 음악 교과서에 따른 비평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노엘 캐럴의 예술비평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한다.

넷째, 위에서 구안한 음악비평 모형을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제시하여 비평 교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을 위한 제재곡을 선정하고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적용한 수업의 실제를 제시한다.

단,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중 서양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비평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의 선행연구들, 즉 음악비평 수업 모형 구상 및 설계에 관한 연구들과 음악비평 교육에 대한 지도 방안을 다룬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박진홍(2009)은 “음악비평 활동을 활용한 음악학습 프로그램 개발”에서 음악 인지 능력의 개념을 음악 자체에 대한 음향적 지각과 음악 외적 요소를 통한 음악에 대한 인지를 모두 활용하여 음악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리하며, 학생들의 음악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스톨니츠(J. Stolnitz)의 예술비평 유형과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를 적용한 비평 수업 모형의 단계를 구상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학습방법 및 단계를 제시하였다.

권기현(2011)은 “음악 비평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5·6 학년 음악 감상 지도” 에서 피아제(J. Piajet)가 제시한 인지발달이론의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5·6 학년의 음악 감상 수업에 비평 활동을 적용한 수업 지도의 실제를 롯시니(G. Rossini)의 “윌리엄 텔 서곡(William Tell Overtrue)”과 “대취타” 그리고 라벨(M. Ravel)의 “볼레로(Boléro)”와 “수제천”을 제재곡으로 하여 구안하였다. 비평 활동을 통한 지도 방안으로는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와 스톨니츠(J. Stolnitz)의 예술비평 유형을 바탕으로 지도 단계를 설정하였고, 단계별로 그에 적합한 교사의 발문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음악적 사고와 악곡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보다 수월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롭고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홍지은(2015)은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음악비평활동 지도방안 연구”에서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대두된 감성지능의 개념 및 중요성, 그리고 음악비평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에 스톨니츠(J. Stolnitz)의 예술비평 유형을 도입시켜 비평과정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생상스(C. Saint-Saens)의 “동물의 사육제(Le carnaval des animaux - Grande fantaisie zoologique)”를 제재곡으로 하는 수업 지도안을 구상하였다.

김도연(2017)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 지도방안 연구” 에서 핵심역량의 개념과 도입 과정을 살펴보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6 가지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악비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펠트만(E. Feldman)과 게히건(G. Geahigan)의 미술비평 모형을 보완 및 혼합하여 음악비평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구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슈베르트(F. Schubert)의 “마왕(Erlkönig)”과 쉔베르크(A. Schönberg)의 “바르샤뱌의 생존자(Ein Überlebender aus Warschau)”를 제재곡으로 하는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림(2018)은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에서 맹학교 고등학생들의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학습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에 음악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맥락적 수정을 가한 음악비평 단계와 스톨니츠(J. Stolnitz)의 예술비평 유형을 조합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임현경(2020)은 “수용미학에 근거한 음악비평 지도 방안” 에서 음악 감상, 음악 비평 및 수용미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에서의 수용미학의 특징을 고찰했는데, 수용미학이란 감상의 주체에게 집중하는 예술비평 이론으로 연구자는 음악에서의 수용미학의 연구 범위를 감상자 측면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수용미학적 관점의 문학비평 모형인 ‘반응중심 학습모형’과 미술비평 모형인 앤더슨(T. Anderson)의 ‘교육적 비평 모형’을 음악비평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제안하였고, 두 가지 모형에 각각 판소리 “심청가” 중 ‘젖동냥 대목’ 과 거쉬인(G.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를 제재곡으로 적용한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를 구안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음악비평 교수와 관련한 연구들은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펠트만의 미술비평 단계는 1970 년대부터 일찍이 학습에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보편적인 비평 교수 방법으로 수용되고 있다.[1] 펠트만의 비평 단계는 독립적 단계로 이루어진 선상 구조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는 획일적인 비평 사고 과정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2]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적용된 미술비평 이론을 고수하기 보다는, 새롭고 유의미한 비평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비평 교육 연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은 비평의 과정을 단계가 아닌 구성 요소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비평의 구성 요소를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각 항목은 다른 항목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현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캐럴의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함으로써, 획일적 비평 사고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한 음악비평 수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1] 박휘락, 『미술감상과 비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2002, p. 209.

[2]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7, 1999, p. 181.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비평의 개념

1.1. 음악비평의 의미

비평은 '식별하다', '판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크리노(κρτνω)'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3] 아센브래너(K. Aschenbrenner)는 비평이란 대상의 특질을 알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하였다.[4] 또한 라틴어의 Criticus 는 '재판관', '감정가', '심사원' 이란 뜻을 지니며, 비평가(critic)라는 말은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내리는 사람'을 일컫는 고대 그리스어 '크리티코스(kritikos)에서 나온 것이다.[5] 이에 따라 비평은 대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 혹은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비평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 의미의 예술비평은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해된다.[6]

음악비평은 음악작품이나 연주 및 음악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미학적·양식적·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질적인 평가를 내리는 음악학의 한 분야이다.[7]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음악비평은 음악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미학적으로 시도하는 분야이다. 음악비평에 대한 담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음악비평은 18 세기 이후 시민사회의 성립 이후 나타난 것으로, "시민적 음악문화에 대한 담론"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음악비평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베커(P. Bekker)는 "음악비평은 음악가와 사회와의 종합을 창출해야 한다." 라고 하며 미학적, 역사적 의미를 중재하여 사회학적으로 음악비평을 정의하였다. 말링(F. Mahling)은

---

[3] Werner Braun, *Musikkritik*, 대학음악저작연구회 번역, 『음악비평』, 서울: 삼호출판사, 1991, p. 12.
[4] Karl Aschenbrenner, *The concepts of criticism*, Dordrecht,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4, p. 2.
[5] Noël Carroll, *On criticism*, 이해완 번역, 『비평철학』, 성남: 북코리아, 2015, p. 30.
[6] 김정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 비평 지도 방법 연구",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 11.
[7] 홍정수 외, 『음악학』, 서울: 심설당, 2004, p. 309.

음악비평의 이상적 형태를 작품과 연주에 대한 객관적 올바름, 공평성으로 정의하였다. 쉐링(A, Schering)은 “음악비평은 해당 시대의 사고 체계의 아들로서, 그 체계의 합리적, 사회적 전제에 의존적이다.” 라며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슈툭켄슈미트(H. Schtuckenschmidt)는 음악비평을 예술작품, 사고관, 기관에 대한 점검 그리고 판단 및 가치평가라고 규정하였다. 이렇듯 음악비평은 음악작품과 연주 뿐만 아니라 작곡가, 작품양식, 음악문화의 사회적 현상, 음악 미학적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8]

음악비평은 음악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본연의 개념을 가지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음악작품에 대한 판단은 미학적·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장르, 양식, 범주 등의 특징과 목적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치판단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을 그저 좋다 혹은 나쁘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기반이 되는 판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해석과 설명은 가치판단에 대한 근거라는 측면과 더불어 타인의 음악적 경험과 사고를 수용하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음악적 가치와 경험을 맛보게 한다.[9]

1.2. 음악비평과 감상

음악 감상이란 음악작품을 음미하면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고 이해하는 경험이다.[10]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때의 듣기는 음악을 수동적, 무의식적으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악을 단순히 듣고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닌, 음악작품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미적인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며 향유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11] 리머(B. Reimer)는 음악 감상 행위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참여 행위임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감상자는 작품 속에

---

[8] 홍정수 외, 앞의 책, p. 319.
[9] 권기현, “음악 비평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5·6 학년 음악 감상 지도”,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17.
[10] 민경훈, 정순영, 『음악 감상과 비평의 이론과 실제』, 고양: 어가, 2022, p. 11.
[11] 민경훈, 정순영, 위의 책, p. 12.

내재된 창작자나 연주자의 주관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열려 있는 의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이다.[12]

음악 감상은 음악비평에 선행되는 근본적인 활동으로, 음악 감상과 음악비평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감상하다'(appreciation)는 라틴어로 'appreciatus'에서 유래한 용어로, 이것의 동사형인 'appraise'는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감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감상이란 음악작품의 의미와 질, 가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13] 이는 곧 음악비평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은 감상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적극적인 감상을 통해 함양한 미적 안목과 음악적 정서는 가치 평가 및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2. 음악비평의 교육적 가치

한슬릭이 70 세가 될 무렵 출판했던 자서전에는 "나의 오랜 비평 활동에 어떤 쓸모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대중에게 끼친 점진적인 교육적 영향력 안에서만 존재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슬릭은 비평의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음악의 소비자들을 '일반 대중'이 아닌, 음악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고유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것이다.[14] 비평의 수용자들은 비평가가 제공하는 작품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 인식하며 더 나아가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평의 기능은 음악에 대한 비평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연결되어 작용할 것이다.

이제 비평은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들은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과 평가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음악 잡지 또는 신문 뿐만

---

[12]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2017, p. 81.
[13] 박휘락, 앞의 책, p. 25.
[14] 음악미학연구회,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하지 않는가』, 오희숙, 이혜진 책임편집, 파주: 음악세계, 2018, p. 109.

아니라 SNS(Social Network Service),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관련 비평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댓글을 통한 비평적 소통 또한 활발하며 이러한 대중들의 비평적 의견 표출과 소통은 음악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악 문화를 생산하는 작곡가와 연주자, 음악 관련 전문가들이 대중들의 사회적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은 음악 문화의 주체로서 대중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부류이며, 대중음악 및 그와 관련된 제작물들은 그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그들을 타깃으로 한다. 또한 최근 조성진,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음악 스타들의 탄생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애호가들을 겨냥했던 클래식 음악 시장의 경향 또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음악 문화의 소비자이자 주체로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또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현대 사회의 음악비평의 주체 가운데 하나로 설명될 수 있으며[15] 그들이 음악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며 건강한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비평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음악교육에서의 음악비평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학습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들과 음악적 경험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음악에 대한 해석 및 가치판단을 수행함에 있어 단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음악의 본질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음악적 경험과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음악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함양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음악비평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감상활동을 이끈다. 감상은 모든 음악 활동의 기초이며, 비평 활동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선행단계이다. 음악의 가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음악비평 활동을 위해서는 음악을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감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음악의 미적 특질과 음악 요소 등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비평적 판단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비평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15] 권기현, 앞의 논문, p. 17.
[16] 박휘락, 앞의 책, p. 55.

감상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더불어 감상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음악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7] 음악비평 활동을 위해서는 작품과 직결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맥락 등 폭넓은 음악적 정보를 탐색하여 가치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분석 및 수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정보들과 감상을 통해 학습한 음악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학습자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음악에 대한 가치를 수용하며 음악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 대다수는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곡 위주로 재생 목록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음악비평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각각의 예술적 가치를 찾아 수용하는 능동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음악비평 활동을 통해 성립한 음악적 가치관을 통해 여러 음악적 자극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고 스스로에게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18]

넷째, 음악적 감수성 및 표현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평의 선행단계로써 음악을 감상하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인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음악의 미적 특질을 파악하는 과정은 음악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길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음악적 표현 능력 또한 향상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학습자들과 음악적 경험과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음악적 견해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며 음악적 소통 및 공감능력을 함양해 나갈 수 있다.

다섯째, 음악 문화를 적극적,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음악비평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음악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과 소통 능력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음악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여러 매체를 통해 음악비평

---

[17] 박진홍, “음악비평의 교육적 의의와 학습 방법 연구”, 『음악응용연구』, 33, 2007, p. 167.
[18] 박진홍, 위의 논문, p. 168.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음악적 가치 판단에 의해 연주회나 공연들을 선별하여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음악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음악 애호가로 거듭날 수 있다.

3. 비평이론의 유형

본 절에서는 여러 유형의 비평이론들 중 음악비평에 적용 가능성이 있거나 음악비평과 관련한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비평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비평이론들의 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타이슨(L. Tyson)의 비평이론

타이슨은 그의 저서 『비평 이론의 모든 것』[19] 에서 다양한 비평이론을 문학 텍스트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열두 가지의 비평이론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네 가지의 비평이론 - 정신분석비평, 신비평, 독자반응 비평, 문화비평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분석비평

정신분석비평은 등장인물들이나 저자의 심리적 욕망, 욕구, 갈등이 의도적이거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재현으로써 어떻게 텍스트로 구체화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인물들의 행동 양식을 인식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읽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텍스트 안에 어떠한 정신분석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지 살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와 죽음 혹은 성욕 사이의 심리적 관계에 대하여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자 및 등장인물들의 무의식에 내재된 문제들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듭 표출되는지 등에 집중하여 살피는 것을 예로 들 수

[19]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 윤동구 번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신비평부터 퀴어비평까지』, 서울: 엘피, 2012.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을 인용할 경우 ( )표 안에 L.T. 와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유의미하며 일관성 있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L.T., p. 94). 문학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현실의 인물은 아니지만, 정신 분석 비평을 통해 그 인물이 인간 존재의 심리적 경험을 재현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2) 신비평

신비평은 문학작품의 해석을 입증하는 유일한 원천은 '텍스트 그 자체' 임을 강조한다. 신비평의 관점으로는 저자가 살았던 삶과 시대 및 시대 정신과 같이 외적인 요소들은 문학 텍스트 그 자체를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반응을 감안한다고 해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문학작품의 형식 요소(formal elements)라고 불리는, 텍스트 그 자체의 언어적 증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지, 구성, 상징, 은유, 시점, 인물 형상화와 같은 요소들이 문학작품을 이루며,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신비평가들은 하나의 문학작품을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 언어적 대상'으로 여긴다. 즉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문학 텍스트는 변함 없이 남는다는 것이다(L.T., p. 299). 텍스트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질서에 따라 배치된 낱말들로 이루어지며 낱말의 선택과 배열, 그리고 조합으로써 미적 경험을 창출하는 문학적 언어는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텍스트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작품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조직하는 양상을 의미하는 '유기적 통일성'은 신비평 이론가들이 문학작품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L.T., p. 301).

3) 독자반응비평

독자반응비평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이를 통해 텍스트를 읽는 과정이 독자가 읽어온 텍스트들, 독자의 인생 경험, 독자가 속해 있는 지적 공동체 등의 특정한 요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L.T., p. 365). 타이슨은 독자들의 반응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다섯 가지의 대표적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상호거래적 독자반응이론이다. 이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동안 생성되는 감정, 연상, 기억 등이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교정의 과정을 통해 해석을 바로잡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연속됨에 따라 문학작품으로서 창조된 시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L.T., p. 371). 두 번째는 영향 문체론으로, 텍스트는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자 독자가 하나 하나의 낱말과 구절을 읽는 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가진다. 즉 텍스트를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L.T., p. 375). 세 번째는 주관적 독자반응이론으로, 앞서 제시한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텍스트상의 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독자의 반응이 곧 텍스트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지면에 인쇄된 언어를 읽을 때 일어나는 독자의 내면적 경험은 상징적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상징화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으로 여긴다(L.T., p. 382). 네 번째로 심리적 독자반응이론은,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접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 일상생활 속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동일하다고 여긴다. 독자의 해석이란 그가 텍스트에 투여한 심리적 요소가 낳은 결과물이며, 이에 따라 해석은 언제나 독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L.T., p. 391). 마지막으로 사회적 독자반응이론은, 문학작품에 대한 개별적, 주관적 반응이 결국 우리가 속한 해석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독자가 적용하는 해석 전략들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L.T., p. 394).

4) 문화비평

문화비평에서는 '문화'를 특정한 생산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며, 고정된 정의가 아닌 살아 있는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문화란 저마다 발전하고 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개별 문화들의 집합체이다. 즉 젠더,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사회적 계급, 직업 등의 요소들이 어우러지고 또 엇갈리는 과정이 하나의 문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L.T., p. 616).

문화비평은 텍스트가 수행하는 문화적 작업에 대해 탐구하는 이론으로, 텍스트가 생산되면서 받아들여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권력 구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전달되며 변형되는지 보여준다(L.T., p. 621). 문화비평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편이며 억압 받는 집단을 지지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를 나누는 방식과 같이 특정한 예술 형식을 분류하는 데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에 대한 탐색이나, 억압 받는 집단의 문화적 생산에 대한 분석 및 가치 평가가 그러한 작업에 속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문화비평은 특히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는데, 문학작품들이 대중적으로 각색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원작의 이데올로기적 내용들이 대중적 판본들에 어떻게 변모되어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L.T., p. 619).

3.2. 스톨니츠(J. Stolnitz)의 예술비평 유형

스톨니츠는 예술비평의 유형을 다섯가지의 관점 즉, '인상주의 비평(impressionist criticism)', '규칙에 의한 비평(criticism by rule)', '맥락 비평(contextual criticism)', '의도주의 비평(intentionalist criticism)', '내재적 비평(intrinsic criticism)'으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1) 인상주의 비평 (impressionist criticism)

인상주의 비평은 맥락주의에 반대한 새로운 비평 운동으로, 예술은 어떤 규칙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다. 직접 관조에 의한 비평가의 경험과 인상에 기초하며, 규칙이나 맥락과 같은 체계적인 이론과 가치 기준은 거부한다.[20] 인상주의 비평은 객관적인 비평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다. 인상주의 비평에서의 주요 문제는 특정한 예술작품에서 제시되는 개성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등에 있다. 인상주의 비평가 프랑스(Anatole France, 1844-1924)는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키는 것이며, 비평은 예술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관념, 심상, 기분, 정서 등을 기록하고 기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비평가는 예술작품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독자에게 설명해주는 임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며 자신의 상상력과 정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본다.[21] 이와 같은 인상주의적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정서적 감정에 의해 작품에 드러나는 주관적

---

[20] 남정은,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음악비평 학습지도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 25.

[21]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 번역,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pp. 452-453.

인상과 개성, 창의성 등을 탐구하며, 자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규칙에 의한 비평 (criticism by rule)

규칙에 의한 비평은 비평가의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예술의 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형이다. 비평가가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예를 들면 '실물다움'이나 '도덕적 기품' 또는 '감정에의 호소력'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이 그 작품의 종류에 적합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판단 기준들은 그것이 특정한 예술작품의 비평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며 만일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비평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22] 비평가는 작품의 성질이 작품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술적인 좋음을 인식하고 가늠할 만한 표준을 지녀야 하며 그 판단 기준들은 미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다면 비평가는 자신의 판단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만일 가치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판단 기준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23]

3) 맥락비평 (contextual criticism)

맥락비평은 예술작품을 사회적, 역사적, 심리적 맥락과 연관시켜 이들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유형이다. 예술작품의 '맥락'은 작품이 생성된 상황들,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품이 지닌 미적 생명력과는 별개로 그 작품이 다른 외적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전부를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말이다. 즉, 예술작품을 사회적 산물로 여기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해당 사회가 속해 있는 민족적 특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24] 맥락주의는 예술의 창작이 전적으로

---

[22] Stolnitz, 위의 책, p. 418.
[23] 권기현, 앞의 논문, pp. 24-25.
[24] 이보림,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한국음악교육학회』, 47(1), 2018, p. 17.

개인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예술을 인간의 삶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적 현상으로 고려한다.[25] 따라서 맥락비평을 통해 예술작품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들과 관련됨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예술작품과 관련된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26]

4) 의도주의 비평 (intentionalist criticism)

의도주의 비평은 예술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밝혀내어 비평하려는 유형이다. 즉, 예술가의 의도성을 파악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비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의도'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지속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의도와 작품이 미적 지각자, 즉 감상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력을 지시하는 미적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27] 심리적 의도는 예술가의 마음 속에 머무르며 지속되는 무엇을 의미하며, 작품 창작 이전이나 창작하는 과정에서 예술가가 구현하기 원하는 예술작품의 완성본에 대한 연구와 결부된다. 미적 의도는 예술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보며 작품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유도한다. 이러한 예술가의 의도는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감상자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28] 따라서 이미 증명된 의도들과 작품과 관련된 맥락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5) 내재적 비평(intrinsic criticism)

'신비평 neo criticism'이라고도 하는 내재적 비평은 문학 비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작품의 외적 요소를 기피하고 내재적 본질에 집중하며 '시로서의 시', 즉 대상을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보는 것에 주목한다. 모든 내재적 비평은 특정 작품의 독특성을 존중하며 그것이 다른 유사한 작품들과 구별되는 점들을 살핀다. 내재적 비평은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술미를 평가하는 비평으로 예술작품을 사회적, 역사적, 심리적 맥락과 연관시키는 맥락적 비평을 비판한다. 그 이유는 작품 외적인 요소들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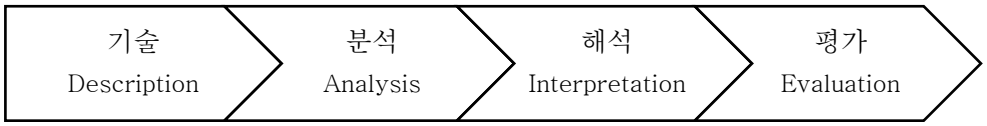
[25] Stolnitz, 앞의 책, p. 451.
[26] 권기현, 앞의 논문, p. 26.
[27] Stolnitz, 앞의 책, pp. 456-458.
[28] 박진홍(2007), 앞의 논문, p. 33.

작품의 본질로 향하는 초점을 흐리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정서를 표출하는 인상주의 및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의도주의 또한 작품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29] 한슬릭(Eduard Hanslick, 1825-1904)은 음악의 내재적 의의를 주창한 음악 평론가로, 내재적 비평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 그는 음악이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부차적 효과일 뿐이며, 음악적 형상이라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를 강조한다. 음악의 본질과 아름다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조화와 대립, 상승과 소멸 등 음들이 만들어 내는 고유한 음악적 형상에 있다고 주장한다.[30]

3.3.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

펠트만(E. Feldman, 1970)은 예술가들이 처음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여 수정 및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듯 작품에 대한 비평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주장하였다. 그는 미술에 대한 비평학습을 기술(Description), 분석(Formal 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31]

[그림 1] 펠트만의 미술비평 단계



1) 기술(Description)

기술은 작품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계로, 감상과 비평의 출발점이 된다.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발현되는 다양한 인상과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 연도, 제작 장소, 사용된 재료 등을 포함하여 작품에 담긴 모든 요소들을 주의 깊게 찾아내고 이것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감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

---

[29] Stolnitz, 앞의 책, pp. 458-460.
[30] Eduard Hanslick, *Vom Musikalisch-Schönen : ein Beitrag zur Revision der Ästhetik der Tonkunst*, 이미경 번역,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울: 책세상, 2018.
[31] 박휘락, 앞의 책, p. 209.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기술은 작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직관적, 감각적 '관찰'과 '묘사'이다.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와 원리들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며, 이렇게 관찰한 것을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은 비평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즉 기술은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상징을 언어로 나타내는 단계이다.[32]

2) 분석(Analysis)

분석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로, 기술 단계를 통해 수집된 목록들을 기반으로 한다. 즉 사물이나 주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선, 형상, 색상과 채색의 질 등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 살피는 활동이다. 분석은 기술의 한 형태이지만 기술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술의 연속이라면 분석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작품을 이루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크기, 형태, 색상, 질감, 공간 및 부피의 관계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형 요소들이 어떠한 원리를 동원하여 작품을 조직하고 형식을 창조해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분석은 다음 단계인 해석과 판단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33]

3) 해석(Interpretation)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고려하는 단계로, 기술과 분석 단계에서 탐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즉 개별적인 특징들을 모아 단일화하여 커다란 아이디어나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는 비평의 단계 중 가장 중요하고 창조적인 단계로, 감상자 자신이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시각적 관찰물들에 기초하여 작가의 의도와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작가는 왜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 '작가는 무엇을 나타내려 했을까?', '이 작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은 감상자의 해석을 이끌어 내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문과 안내, 그리고 음악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기회들의 제공을 통해 해석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감상자들은 해석 단계에 보다 수월히 임할 수 있으며

---

[32] 박휘락, 앞의 책, pp. 210-211.
[33] 김은주, "E. B. Feldman 의 미술비평교육이론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39.

실력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다.[34] 또한 감상자들은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제작 배경,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포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갈 수 있다. 좋은 해석이란 음악작품 그 자체의 청각적 요소를 근거로 하여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35]

4) 평가(Evaluation)

평가는 앞의 단계들을 통해 밝혀진 작품의 현상과 내용들에 근거하여 작품의 최종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비평의 마지막 단계이다. 비평적 평가 활동으로는 작품의 목적이나 기능 확인하기, 그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 및 요구와 연관시키기, 작품이 역사적 원형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지 혹은 벗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등이 있다. 평가 단계에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 판단은 감상자의 경험과 사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 등 여러 개인적,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36] 따라서 각각의 주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34] 박휘락, 앞의 책, p. 211.
[35] 김은주, 앞의 논문, pp. 41-42.
[36] Edmund Burke Feldman, *Becoming human through art: 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0, pp. 350-351.

4.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비평 교육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비평'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2009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비판적 사고' 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평'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처음이다. 공통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 3 개의 영역 중 감상영역에 모두 '비평'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음악 진로 선택 과목 중 하나로서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음악 감상에 대한 연장선상에 비평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평'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여 음악 교과에서 비평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4.1. 공통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비평

공통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의 '감상'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라고 하여 비평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비평에 대한 학습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37] 첫째, 감상학습을 통해 습득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에 관해 말하거나 글로 쓴다. 둘째, 감상학습을 통해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고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음악의 요소와 개념, 종류와 배경 등을 활용하여 음악의 가치에 대해 평가한다. 아래의 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공통교육과정에 속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급의 '감상'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요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감상영역의 내용체계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3~4학년	5~6학년	중학교

[37] 박진홍, "음악 교과에서 음악 비평 활동의 적용 영역", 『음악응용연구』, 37, 2018, p. 120.

<table>
<tr><td rowspan="3">감상</td><td rowspan="3">· 음악 요소와 개념
· 음악의 종류
· 음악의 배경</td><td rowspan="3">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td><td>3~4학년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td><td>5~6학년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td><td>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td></tr>
<tr><td rowspan="2">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td><td rowspan="2">다양한 문화권의 음악</td><td>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td></tr>
<tr><td>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td></tr>
</table>

4.2. 고등학교 일반선택 교육과정 ‘음악’에 제시된 음악비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일반선택 교육과정 ‘음악’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음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을 비평한다.’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급과 마찬가지로 감상 영역의 내용체계의 ‘일반화된 지식’ 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라고 하며, 감상영역과 비평활동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12 음 02-02]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12 음 02-03]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라고 제시하며 비평과 관련된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학생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음악적 해석과 비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라는 항목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파악한 음악 요소와 개념 그리고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본인들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비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체적인 비평활동에 대한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4.3. 고등학교 진로 선택 교육과정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신설된 과목으로 진로 선택 교육과정에 속하며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38] 목표로서 ‘다양한 음악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38]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2], p. 38

기른다. 또한 음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며,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 능력을 기른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목표에 대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음악 감상을 통하여 음악미를 체험하고 음악적 정서를 함양한다.
나. 다양한 시대, 지역 및 종류의 음악을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다. 음악 현상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기른다.
라. 다양한 음악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그에 대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은 평가 그 자체 보다 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것을 생활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39]

내용 체계는 '감상'과 '비평' 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감상의 핵심 개념은 음악의 특징과 음악적 감수성으로, 비평의 핵심 개념은 음악적 안목과 비평의 태도로 구분된다. 비평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음악 비평은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 이라고 제시하며 음악비평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음악 감상과 비평'의 내용체계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감상	음악의 특징	음악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음악의 시대별 특징	· 이해하기 · 토론하기 · 비교하기 · 구별하기 · 설명하기 · 평가하기 · 표현하기 · 소통하기
			음악의 문화적 배경	
	음악적 감수성	음악은 작곡가나 연주자의 음악적 의도가 표현된 것이다. 음악 감상은 음악이 지닌 음악적 의도와 특징을 발견하고 음악미를 체험하는 것이다.	음악적 표현	
			음악적 의도와 특징	

[39] 박진홍(2018), 앞의 논문, p. 123

비평	음악적 안목	음악 비평은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음악의 가치 인식	
	비평의 태도	음악 비평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비평의 의의	

성취 기준으로는 '다양한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음악미를 향유하고 음악에 대한 안목을 갖추어 음악작품과 연주가 지니는 가치를 기준에 의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음악감상을 바탕으로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고, 비평활동을 통해 음악의 본질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적 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창의·융합 사고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른다.' 고 제시하고 있다. 즉, 간략히 정리하면 네 가지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첫째는 음악의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둘째는 음악적 소통 역량, 셋째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창의·융합 사고, 마지막으로는 음악적 감수성이다. 감상과 비평의 성취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감상

[12 감비 01-01] 여러 시대의 음악을 듣고 시대별 음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12 감비 01-0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음악을 비교하여 듣고 토론한다.

[12 감비 01-03] 음악을 듣고 작곡가나 연주자의 음악적 표현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12 감비 01-04] 음악 작품이 지닌 음악적 의도와 특징을 이해하여 설명한다.

2) 비평

[12 감비 02-01]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12 감비 02-02] 다양한 음악에 대한 비평의 의의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근거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내용 및 영역을 선택하거나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40] 또한 흥미와 창의성을 유도하는 교사의 발문과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강조하며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 비평활동 현황

앞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비평활동이 음악 감상에 대한 연장선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음악교과서 내 비평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판사별 총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영역에 해당하는 악곡을 문화권에 따라 분석하고, 감상곡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비평활동을 유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각 2 권으로 구성되어 총 28 권이나, 본 연구에서는 각 2 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출판사별 14 종으로 분류하였다.

5.1. 문화권에 따른 감상곡 분석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영역에 해당하는 악곡 중 부수적인 형태로서 제목만 제시되는 악곡들은 제외하고 감상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요 감상곡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은 국악, 서양음악, 세계음악, 대중음악의 총 네 가지의 문화권에 따른 음악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 대상을 분류하였다. 국악은 한국 전통음악과 창작 국악곡을 포함하였고, 서양음악은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에 의한 예술 음악으로 분류하였다. 세계 음악은 국악과 서양음악에 속하지 않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음악, 세계 민요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포함하며 대중음악은 교과서에서 대중음악으로 소개된 악곡들 및 뮤지컬음악, 영화음악을 포함한다. 교과서별 문화권에 따른 감상곡 비율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40]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2], p. 40.

[표 3] 교과서별 감상영역 악곡의 문화권에 따른 분석

문화권 / 교과서	국악	서양음악	세계음악	대중음악	총
교학사	9(32%)	19(68%)	0(0%)	0(0%)	28(100%)
금성	13(32%)	27(66%)	0(0%)	1(2%)	41(100%)
다락원	13(26%)	26(52%)	6(12%)	5(10%)	50(100%)
동아	13(34%)	25(66%)	0(0%)	0(0%)	38(100%)
미래엔	16(37%)	27(63%)	0(0%)	0(0%)	43(100%)
박영사	10(25%)	28(70%)	0(0%)	2(5%)	40(100%)
비상교육	18(24%)	42(57%)	0(0%)	14(19%)	74(100%)
성안당	22(35%)	40(65%)	0(0%)	0(0%)	62(100%)
세광음악	13(43%)	17(57%)	0(0%)	0(0%)	30(100%)
아침나라	18(45%)	20(50%)	0(0%)	2(5%)	40(100%)
와이비엠	25(36%)	28(41%)	10(14%)	6(9%)	69(100%)
음악과생활	22(41%)	7(13%)	25(46%)	0(0%)	54(100%)
지학사	18(35%)	21(41%)	2(4%)	10(20%)	51(100%)
천재교과서	17(29%)	41(69%)	0(0%)	1(2%)	59(100%)

단위: 개수, 괄호 안의 수는 총 개수 대비의 비율을 나타냄.

분석 결과, 국악과 서양음악은 모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세계음악, 대중음악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음악이 제시된 교과서는 다락원, 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지학사로 총 4 종이며 대중음악이 제시된 교과서는 금성, 다락원, 박영사,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로 총 8 종이다.

특히, 서양음악이 50% 이상의 비율로 제시된 교과서가 가장 많았는데 교학사, 금성, 다락원, 동아, 미래앤, 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세광음악, 아침나라, 천재교과서의 총 11 종이 포함된다. 총 14 종의 교과서 중 음악과 생활만이 서양음악보다 국악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13 종의 교과서는 서양음악이 국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감상영역에 해당하는 악곡으로 서양음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실제적 비평활동 유발 여부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비평활동의 유발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별 '비평'이라는 용어의 제시 여부 및 비평과 연관된 학습 활동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영역에 해당하는 악곡에 대한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비평'이라는 용어의 제시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단 1 종의 교과서에 '비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생활의 음악 1 의 106 쪽에서는 창작 국악곡들을 제재곡으로 하며 이에 대한 학습 목표로 '다양한 연주 형태의 창작 국악곡들을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평을 감상과 연계하여 학습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에 제시된 학습 활동으로서 비평을 유도하거나 비평과 관련된 활동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비평이라는 용어만이 학습 목표로 사용되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부재하였다.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13 종의 교과서에는 비평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교과서는 비평과 관련한 구체적인 학습 활동 및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감상에 큰 비중을 두며 '제재곡의 느낌을 이야기 해보자.', '~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자.', '~와 ~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등과 같이 감상에 대한 소감을 요구하거나 간결한 감상문을 써보는 정도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음악작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비평으로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상위 학습 활동의 연장선으로 작품의 맥락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교과서 내 비평활동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비평은 음악 감상에 대한 부수적 활동으로 제시되며 감상곡으로는 서양음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적극적인 비평 활동을 제시하기 보다는 감상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자칫 소극적이고 애매한 비평 활동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만으로 적극적인 비평 교수를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음악비평 수업 방안에 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

본 장에서는 노엘 캐럴(Noël Carroll)이 저서 『비평 철학』[41]을 통해 제시하는 예술비평 이론에 대하여 예술비평의 정의, 예술비평의 대상, 예술비평의 기능, 예술비평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예술비평의 정의

예술비평이란 예술작품을 비평하는 언어적 행위로, 특정한 예술 형식에 속한 어떤 작품들에 대해 말 혹은 글로 이루어진 비평을 말한다. 비평의 핵심은 해당 예술작품이 속한 예술적 범주 혹은 장르에 입각한 평가이다. 이는 예술작품에서 가치 있는 것이나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며, 이것이 왜 그러한지 설명하는 것이다. 평가라는 요소는 비평이라는 행위를 예술작품에 대한 다른 형식의 담론들, 예를 들면 리뷰와 같은 형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N.C., p. 65). 비평을 평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비평 개념의 어원으로부터 유래한다. '비평가(critic)'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크리티코스(kritikos)'에서 나온 것인데, 크리티코스란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일상에서 쓰이는 '비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크리티코스는 부정적 평결 뿐 아니라 긍정적 평결 또한 내릴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예술 비평가 또한 작품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비평 또한 제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N.C., p. 30). 비평의 주된 역할이란 예술 작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며 그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

[41] Noël Carroll, *On criticism*, 이해완 번역,『비평철학』, 성남: 북코리아, 2015. 지금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을 인용할 경우 ( )표 안에 N.C. 와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2. 예술비평의 대상

비평의 대상은 작품을 생산하며 예술가가 하는 것 혹은 행한 것이며 이러한 예술가의 행위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비평의 핵심은 작품에서의 어떠한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작품에서 가치 있는 것이 곧 비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비평의 대상은 예술가의 성취 혹은 실패의 측면에서 본 예술가의 활동, 곧 예술가의 예술적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다(N.C., p. 75). 즉 비평가가 찾아낸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감상자보다도 예술가 쪽에 둔다는 것이며, 예술가가 본인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성공했는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인 구성을 통해 의도했던 경험을 산출하는데 성공한 경우,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이끌어내는 작품의 함량이 곧 작품이 이룬 성취에 속하는 것이다. 비평가의 주된 역할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이라면, 비평적 관심의 대상은 작품이 감상자나 독자가 가치 있다고 여길 경험, 정보가 갖춰진 준비된 경험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이다(N.C., p. 90).

3. 예술비평의 기능

비평의 본성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것이다. 비평이란 예술 작품에서 가치 있는 것이나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비평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 맥락에서 비평의 주된 기능은 비평가가 여기는 작품의 가치들을 독자들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즉 감상자로 하여금 주어진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평가와 비평의 주된 기능이다(N.C., p. 66). 비평의 소비자들은 작품의 결점에 주목하는 비평 보다는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비평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예술작품에서 가치가 없는 지점을 식별해내는 것 보다는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캐럴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드라이든(John Dryden, 1631~1700)의 말을 인용한다(N.C., p, 68). “비평의 주된 업무가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평의 본성에 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 제도화된 비평은 훌륭한 판단을 위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독자들을 즐겁게 만들 작품의 탁월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4. 비평의 부분들

캐럴은 비평을 행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비평의 부분들" 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작업들에는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 평가가 포함된다. 앞의 여섯 가지 작업들-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은 마지막 항목이자 비평의 핵심인 '평가'를 위한 근거로 기능한다. 이 모든 작업들이 한 편의 비평에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비평이라면 위 여섯 가지 작업들 중 최소 한가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어떠한 형태로의 평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비평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품을 그저 좋다, 나쁘다로 치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N.C., p. 116). 비평에서 본질적인 것은 근거를 갖춘 평가, 즉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 평가이며 이 때의 이유들이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이라는 수단들을 근거로 하여 전개될 수 있다.

4.1. 기술(description)

기술이란, 다루고자 하는 예술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독자나 청자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비평가가 예술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술작품에 관한 기술이 부재하다면 독자들은 비평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술을 통해 비평가가 논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독자 또는 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 작품의 경우, 비평가는 작품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며 색, 사물들의 배치 및 칠해진 물감의 형태 등을 설명함으로써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N.C., p.118). 즉 작품의 객관적 요소를 관찰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언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술작품은 매우 복잡한 대상이며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므로 예술작품에 대한 완전한 기술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한 기술은 존재할 수 있다. 기술은 비평의 다른 작업들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비평가가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 그리고 평가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분류(classification)

분류란, 비평하고자 하는 예술작품을 적절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어떠한 범주에 속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회화, 조각, 음악, 연극, 무용, 건축, 사진, 영화, 비디오의 예술 형식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각각의 예술 형식은 장르, 사조, 양식, 한 작가의 전체 작품 등 더 다양한 종류의 범주로 나뉜다. 분류는 비평 작업의 기본이 되며, 작품을 특정한 범주 및 종류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동시에 비평의 방향성에 대해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N.C., p. 127). 비평가는 비평하고자 하는 예술작품을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여 그러한 예술 유형은 어떠한 목적과 원리를 지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가가 이루고자 했던 성취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N.C., p. 130). 한편으로 분류는 비평가가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는 비평가가 예술작품을 덜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어떠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인지할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은 판단 착오에 의한 분류는 예술작품에 대한 다른 유형의 비평에도 혼란을 야기하므로, 비평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잘못된 분류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기도 하다(N.C., p. 132). 비평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하나의 분류에 도달하면, 이를 작품 자체 또는 다른 경쟁적 범주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검토하며 자신이 제시한 분류가 해당 작품의 중요한 특징과 충분히 상응하는지, 또한 자신의 판단이 다른 범주화의 경우보다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된다(N.C., p. 136).

4.3. 맥락화(contextualization)

맥락화는 예술작품에 대한 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외적 기술이란 곧 예술작품의 생산을 둘러싼 예술사적, 제도적,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N.C., p. 137). 즉

예술작품을 좁게는 예술사적·제도적 맥락,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적 맥락에 놓음으로써 비평가에게 작품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N.C., p. 143). 이러한 맥락을 통해 예술가가 작품을 생산하며 마주했던 일련의 과정과 선택의 논리가 설명될 수 있으며, 당시의 지배적인 환경의 요구를 지각하고 그에 따라 작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원리가 유도될 수 있다. 작품의 목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작품의 의도에 따른 특징에 관한 맥락적 기술은 그러한 특징들이 예술의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주는 분석과 더불어 비평적 평가를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된다(N.C., p. 143). 비평가는 작품을 맥락화 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가치의 본질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감상자는 비평가가 밝히고 있는 작품의 맥락을 통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작품에 내려진 평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N.C., p. 137).

4.4. 해명(elucidation)과 해석(interpretation)

캐럴은 해명과 해석을 구분하였다. 이 둘은 부정할 수 없는 관련성을 갖게 되는데, 모두 예술작품에 대한 '의미'를 다루기 때문이다. 해명은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 해석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해명(elucidation)은 주로 작품이나 그것의 부분들이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을 경우, 그러한 맥락 속에 놓인 작품과 그 부분들이 갖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아 전달하는 작업이다. 해석과 대비되는 해명의 특징은 작품에 나타나는 의미론적·도상학적 기호들의 지시적 의미에 좁게 집중하는 것이다(N.C., p. 150). 즉 이미 고정 및 확립된 관례적인 상징들과 이들이 상징하는 것들 간의 연계를 정하는 것이다. 그 연계는 연상에 의한 것 또는 자연 발생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작업이 해명에 속한다(N.C., p. 145).

이에 반해 해석(interpretation)은 단순한 언어적 의미나 기호적 의미, 회화적 의미, 연상적 의미보다는 그 폭이 넓다고 생각되는 의미들을 다룬다. 작가가 작품이나 작품의 일부분으로 무엇을 의도 혹은 의미하려 하는지(예를 들어 작품의 주제나 요지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N.C., p. 146). 비평에서 해석의 목적은 감상자가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비평가는 해석이라는 작업을 통해 예술작품이 지니는 요소들이 작품의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N.C., p. 156).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위해 그것을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 비평가는 예술적 작업들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을 명료하게 한다. 이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것이다(N.C., p. 147). 해석은 예술작품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행위, 모티브들의 반복과 병치 같은 서사 구조, 회화적 배열, 라이트모티브(leitmotif)를 비롯한 여러 음악적 요소들 등이 포함된다. 해석에 적절한 대상이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 또는 드러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N.C., p. 155).

4.5. 분석(analysis)

분석은 예술작품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넓은 부류의 비평 활동을 의미한다(N.C., p. 166). 분석의 범주는 해석을 포함한다. 즉 해석은 분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목적이나 요지는 감상자에게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려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을 분석하려면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를 위해 어떠한 선택과 작업을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작업, 즉 해석을 필요로 한다(N.C., p. 167). 그러나 작품의 목적과 요지에 대하여 의미론적인 설명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미시(Amish) 사람들이 만든 격자무늬 퀼트 작품에는 해석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것의 색과 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눈길을 끌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다.[42] 분석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존재한다. 하나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의 근거를

[42] 이해완, 『노엘 캐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p. 93.

제시하여 평가를 정당화하는 것이다(N.C., p. 172). 비평가는 예술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이 성취되거나 혹은 성취되지 못하는 방식들을 제시하여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의 전체 및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기능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N.C., p. 171).

4.6. 평가(evaluation)

비평이란 이유에 근거한 '평가' 이다. 즉 예술작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적 평가는 그 예술작품에 대한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에 의해 증거와 이유로써 뒷받침 된다. 캐럴은 평가를 통해 작품의 등급을 매기고, 가치 없는 것을 식별하는 것 보다는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N.C., p. 67). 이에 따라 개별 예술작품들이 속해 있는 장르, 양식, 사조 등의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범주의 특징과 목적들을 어떻게 또 얼마나 잘 실현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43]

지금까지 살펴본 "비평의 부분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노엘 캐럴의 비평의 부분들

기술	예술작품의 객관적 요소를 관찰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언어적으로 묘사하는 것
분류	예술작품을 특정한 범주 및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
맥락화	예술작품이 생산된 맥락에 대해 설명하는 외적 기술
해명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의미론적, 도상학적 기호들의 지시적 의미를 밝히는 것
해석	작가가 작품으로 무엇을 의도 혹은 의미하려 하는지 탐구하는 것
분석	예술작품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하는 것
평가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

[43] 이해완, 앞의 책, p. 90.

Ⅳ. 음악비평 수업의 지도 방안

본 장에서는 노엘 캐럴의 예술비평 이론을 적용한 음악비평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캐럴이 제시하는 예술비평 이론을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구안된 음악비평 모형을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하였으며, 음악비평 모형에 따른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화,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1.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을 적용한 음악비평 모형 구안

본 절에서는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을 바탕으로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고, 그에 따른 비평 학습 계획을 제시한다. 먼저, 음악비평 모형의 구안 원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평 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1.1. 음악비평 모형 구안의 원리

1.1.1.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한 노엘 캐럴의 '예술 비평의 부분들'

노엘 캐럴은 비평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들을 '비평의 부분들'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 해석, 분석, 평가의 총 여섯 가지의 부분들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노엘 캐럴이 제시한 예술 비평의 부분들에 대한 해설을 음악 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총 여섯 가지의 부분들 중 해명과 해석은 그들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엷으므로(N.C., p. 158) 하나의 범주로 일괄하였다. 따라서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의 총 다섯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노엘 캐럴의 예술 비평의 부분들을 음악 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기술은 음악작품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음악비평의 기초가 되며 비평의 다른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음악작품 혹은 음악적 현상 등에서 묘사되는 모든 음악적 정보를 포함하며 음악적 직관에 의해 발현되는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곡가, 작품의 제목, 작곡 연도 와 같이 기본이 되는 정보와 연주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며, 작품을 감상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구성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 조성, 셈여림, 음색 등의 특징과 이들이 조합되어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기술을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음악의 형식을 주의 깊게 느끼고 파악하며 감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분류

분류는 음악작품을 특정한 범주 및 종류에 포함시키는 작업으로, 음악작품은 장르, 국가, 양식, 연주 형태, 음악사조, 시대 등 다양한 범주에 나뉘어 속할 수 있다. 음악작품을 특정한 범주 또는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평을 풀어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N.C., p. 127) 예를 들어, 헨델(G. F. Handel, 1685-1579)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종교음악의 범주로 놓은 비평과 극음악의 범주로 놓은 비평은 진행 양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전자는 종교적 특성과 관련된 비평 요소들에, 후자는 극적 특성과 관련된 비평 요소들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작품의 분류는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목적 및 원리와 결부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다시 예로 들자면, 종교음악으로 분류하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음악으로, 극음악으로 분류하면 극의 원리를 지닌 음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3) 맥락화

맥락화는 음악작품을 둘러싼 외적 요소들에 대해 탐구 하는 것으로, 좁게는 작품을 둘러싼 예술사적, 제도적 맥락을 그리고 넓게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N.C., p. 137). 음악작품에서 ‘맥락’(context)은 음악작품의 창작 동기,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작품이 지는 미적 생명과는 별도로 그 작품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전부를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말이다.[44] 음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한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음악은 작곡가가 거쳐온 삶에 의한 심리적 특질이 녹아 있고, 작곡가가 속한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역사 등의 제반사항이 반영되어 있다.[45] 예를 들어, 베토벤(L. v. Beethoven)의 제 3 번 교향곡 "영웅"은 원래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한 작품으로 그의 이름을 딴 "보나파르트" 라는 제목으로 작곡하였으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고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자 이에 실망하여 "영웅"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이처럼 음악작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맥락적 요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작곡가의 의도 및 작품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는 과정을 보다 명료하고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

4) 해명과 해석

해명은 음악작품이나 그것의 부분들이 갖는 속성 또는 상징적, 함축적 내용을 전달하는 작업인데, 해석과는 달리 작품에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적 요소들을 단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준하여 좁게 풀이하는 것이다. 즉 음악작품의 상징적, 의미적 요소들을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의미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를리오즈(H. Berlioz, 1803~1869)의 "환상 교향곡"에 등장하는 고정 악상(idée fixe)은 작곡가의 작곡 당시의 상황과 작품의 예술적 관행의 맥락에서 볼 때, 베를리오즈의 연인 해리엇 스미슨 (Harriet Smithson, 1800-1854)을 상징함을 제시해주는 것이 해명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해석은 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작곡가의 의도에 대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작품에 담긴 함의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으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작품이 지니는 음악 요소들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음악 작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또 작곡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때 작품의 창작 배경, 창작 의도 및 연계된 상황 등 맥락적 요소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에서 수집한 객관적 요소들은 작품의 의미적 측면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해석에 적절한 대상은 즉각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작품의 요소들이다. 특히, 표제적

---

[44] Stolnitz, 앞의 책, p. 424.
[45] 권기현, 앞의 논문, p. 25.

성격이 강한 음악작품에서는 음악에 함축된 은유나 상징, 모티브의 의미와 배열, 의도적 표현 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N.C., p. 155).

캐럴은 해명과 해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명과 해석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엷다고 언급한다(N.C., p. 158).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해명과 해석을 하나의 범주로 일괄하여 음악 비평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5) 분석

분석은 음악작품 전체 및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음악작품이 가지는 어떠한 목적이 음악 요소들에 의해 실현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기술'에서 파악한 리듬, 선율, 화성, 조성, 셈여림, 음색 등의 음악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살피며 이들이 작품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은 해석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분석이 해석과 차별되는 지점은 작품이 지니는 어떠한 의미와 관련된 설명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의 피아노 소나타 제 16 번의 1 악장은 제시부의 제 1 주제가 원조(다장조)로 시작하고 제 2주제가 완전 5도 위의 딸림음조(사장조)로 전조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소나타형식의 전조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 분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목적이 특정한 의미를 내포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기쁨과 같은 감정적 상태를 자아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표현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다(N.C., p. 168). 따라서 작품이 촉발하고자 하는 감정과 분위기가 음악 요소에 의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 살피는 경우 또한 해석과 구별되는 분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작품의 부분적 요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 구조 및 특성 또한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음악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원리로 작품을 조직해 나가는지 파악해 나가기 위한 집중적 감상 및 음악적 지식 함양이 요구된다.

음악비평 모형 구안에 있어 '분석'은 '작품의 의도와는 상관 없는 작품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그 범주로 하여 '해석'과의 영역별 구분점을 명확히 하였다.

6) 평가

평가는 음악작품에 대한 가치를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음악 작품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기 보다는 예술적 장점과 가치로움으로 감상자들을 인도하는 작업이다. 어떠한 음악작품에 대하여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어떠한 특징을 하나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N.C., p.74).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경험과 사고 방식,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각 주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작품을 감상하고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면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품으로 판단한 이유와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캐럴이 제시하는 비평의 다른 요소들인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이 평가의 이유와 증거로서 뒷받침 될 수 있다.

1.1.2.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의 유기적 관계

앞서 살펴본 캐럴의 비평이론에 따르면 비평의 본성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것이며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평가를 위한 근거로 기능한다. 이 때, 앞의 다섯 가지 절차들(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독립적 단계가 아닌, 유기적 관계로서 작용한다. 이들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기술은 모든 비평의 부분들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즉 작품을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하고자 할 때, 작품의 어떤 면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술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N.C., p. 119).

분류는 작품을 특정한 종류에 포함시키는 작업으로, 이를 위하여 맥락적, 관례적 단서들을 사용할 수 있다(N.C., p. 129). 또한 작품이 속하는 범주를 확인함으로써 작품이 갖는 어떠한 취지와 의도, 혹은 목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N.C., p. 228). 즉 분류는 맥락화, 해명과 해석, 그리고 분석과 연관된다.

맥락화는 작품을 둘러싼 예술사적, 제도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서술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맥락을 통해 작곡가가 직면했던 환경과 그에

따른 작곡가의 선택의 논리가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N.C., p. 143). 작품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러한 맥락적 지식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작곡가의 의도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해명과 해석, 그리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작곡가의 목적에 의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살피는 분석을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된다(N.C., p. 143).

해명과 해석은 작곡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작업이며, 분석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들이 작품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실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또한 작품의 목적이란 많은 경우 감상자에게 어떠한 주제 혹은 의도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해명과 해석 그리고 분석은 밀접하게 연관된다(N.C., p.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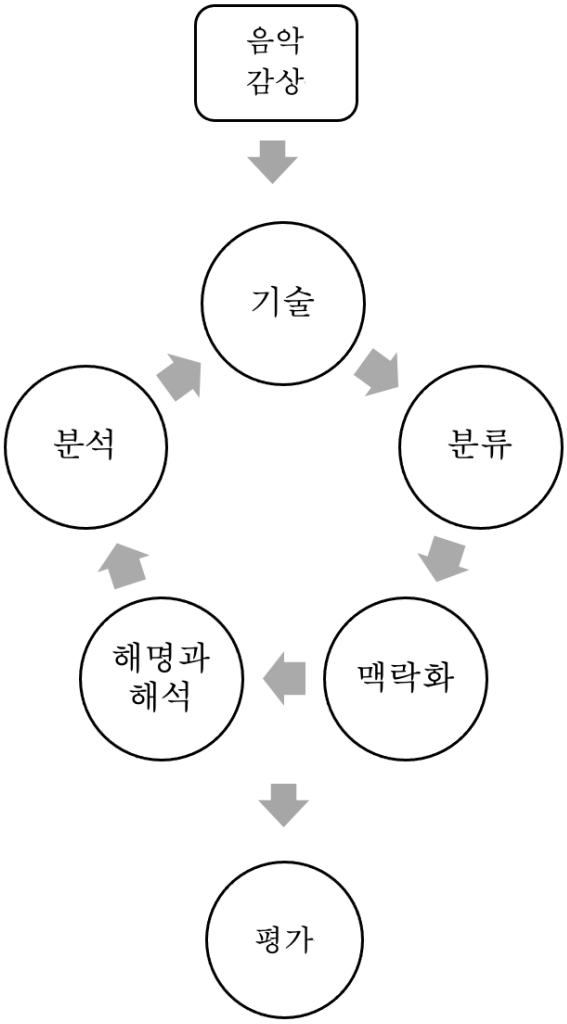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각각 독립적인 단계로서 그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기능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절차들은 선적인 진행 과정이 아닌,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1.3. 평가로서의 예술비평

진정한 의미에서 비평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의 필요 조건은 평가를 산출한다는 점이다. 평가는 비평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평가는 작품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다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비평에서의 평가는 증거와 이유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비평의 다른 구성 요소들(기술, 분류, 해명과 해석, 맥락화, 분석)에 의해 뒷받침 된다. 캐럴은 더 나아가 비평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위계를 부여하는데, 바로 평가가 비평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기술, 분류, 해명과 해석, 맥락화, 분석 중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어느 것이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은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평가는 비평의 본질로서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을 증거와 이유로 하여 산출된다(N.C., pp. 64-65).

1.2.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에 따른 음악비평 모형

음악 감상은 음악 비평에 선행되는 근본적인 활동이므로 음악 비평 모형의 첫 단계로 음악 감상을 삽입하였으며, 지금까지 제시한 구안 원리에 따라 음악 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에 따라 구안된 음악비평 모형

2.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구상

본 절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음악비평 모형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음악비평 학습 내용 구상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의 이론적 원리에 대해 제시하였다.

2.1. 음악비평 학습 내용 구상의 원리

2.1.1. 노엘 캐럴의 비평이론에 따라 구안된 음악비평 모형 기반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은 앞서 구안한 음악비평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한 노엘 캐럴의 여섯 가지 비평의 부분들-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에 대한 각각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한 여섯 가지 비평의 부분들의 요지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음악비평 중심으로 재해석한 노엘 캐럴의 "비평의 부분들"

기술	음악작품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 즉 작곡가, 작품의 제목, 작곡 연도, 연주 형태를 포함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인지할 수 있는 음악 요소에 대한 묘사
분류	음악작품을 장르, 국가, 연주 형태, 음악 사조, 시대 등 다양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맥락화	음악작품을 둘러싼 예술사적, 제도적 맥락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 그리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서술
해명과 해석	음악작품 혹은 그것의 부분들이 가지는 의미와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분석	음악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작품의 의도와는 상관 없는) 작품의 구조, 감정, 표현 등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평가	음악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이 평가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됨

2.1.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및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수용

중학교급을 포함하는 2015 개정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에 비평의 개념이 등장한다. 비록 비평의 개념만 등장할 뿐 비평 교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하지만, 음악비평 활동은 음악 감상의 선행 후 그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므로 음악 비평 학습 방법 구상 시 ‘감상’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을 참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은 악기 구성 뿐만 아니라 음악의 형식, 연주 장소, 악기의 음색과 음량, 연주 형태와 관련된 내용 등도 포괄하여 지도한다.

- 한 시대의 음악에 대한 이해는 그 세기의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학교급에 따른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수용하였다. 중학교급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목록 중 서양음악의 요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박자’,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여러 가지 음계’, ‘딸림 7 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형식(론도, ABA, 변주곡)’, ‘셈여림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 ‘여러가지 음색’을 포함하여 비평 학습 방법을 구성하였다.

2.1.3.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따른 범위 설정

효과적인 음악 비평 학습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 중학교급에 따른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검토하여 참조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학교급에 따른 음악 요소와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범위와 하위 항목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현된 교재이므로 국가 수준의 학습 목표와 기준을 바탕으로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체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2 권으로 구성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 5종(교학사, 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즉, 총 10권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음악 요소 및 개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2.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노엘 캐럴의 여섯 가지 비평의 부분들-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각의 교수·학습 내용을 아래에 서술하였다. 모든 범주에 대한 학습 내용은 음악 감상을 선행한 후 제시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 학생들은 제시된 모든 학습 내용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판단 하에 학습 내용이 선택적 혹은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1. 기술

기술의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음악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 연주 형태, 연주 장소, 음악 요소, 가사가 포함된다.

1) 기본 정보

기본 정보는 비평 활동 전에 선행된 감상 활동을 통해 주어진 음악작품의 표면적 정보를 말한다. 음악작품의 작곡가, 제목 또는 작품 번호, 작곡 시기가 이에 속한다.

2) 연주 형태

연주 형태는 크게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하며 성악은 독창, 중창, 합창으로, 기악은 독주, 중주, 합주로 분류한다. '기술'에서의 연주 형태는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며 '분류'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3) 연주 장소

녹음된 음반, 콘서트홀과 같은 실내 연주회장, 야외 연주회장, 길거리 공연 등 연주 장소에 대해 파악한다.

4) 음악 요소

음악 요소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중학교급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화성과 종지, 박자 및 리듬꼴, 빠르기, 음색, 음계, 셈여림을 포함하며, 선율과 조성을 추가하였다.

[표 6] 음악 요소별 기술 교수·학습 내용

음악 요소	교수·학습 내용
선율	음악작품의 주제 선율을 찾아보고, 이를 허밍으로 불러본다. 또한 주제 및 주요 선율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화성	음악작품의 주제 및 주요 선율에 동반되는 화성 진행 및 종지의 유형을 알아본다. · 협화음 및 불협화음의 사용 여부 · 주요 3화음 및 딸림 7화음의 사용 여부 · 종지의 유형: 정격종지, 변격종지, 허위종지, 반종지
리듬	음악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리듬꼴을 찾아보고, 이를 손뼉으로 쳐본다. 그리고 당김음의 사용 여부를 알아본다.
빠르기	음악작품의 빠르기 및 빠르기의 변화를 알아본다.
음색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데에 사용된 악기군(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및 각각의 악기를 알아본다.
조성	음악작품의 조성 및 조바꿈 여부를 알아본다
음계	음악작품에 사용된 음계를 알아본다. 음계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파악한다. · 장음계, 단음계, 5음음계, 온음계, 반음계
셈여림	음악작품에 드러나는 셈여림의 변화와 대비를 파악한다.

5) 가사

성악곡의 경우, 가사의 내용을 이해한다. 가사가 외국어일 경우, 가사를 우리말로 해석해본다.

2.2.2. 분류

분류의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연주형태, 장르, 국가 및 언어, 속하는 시대 및 음악사조에 따라 음악작품을 분류하는 것으로, 이들 각각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연주 형태

[표 7] 연주 형태 분류 기준

기악	독주	.
	중주	- 악기의 수에 따른 분류: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 등 - 악기의 구성에 따른 분류: 현악 3중주, 피아노 3중주, 현악 4중주, 목관 5중주, 금관 5중주 등
	합주	현악합주, 목관합주, 금관합주, 관현악 합주
성악	독창	.
	중창	2중창, 3중창, 4중창 등
	합창	- 성별에 따른 분류: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 성부의 수에 따른 분류: 2부합창, 3부합창, 4부합창 등

2) 장르

[표 8] 장르 분류 기준

기악곡	관현악곡	교향곡, 교향시, 협주곡
	실내악곡	현악 3중주, 현악 4중주, 현악 5중주, 피아노 3중주, 피아노 4 중주, 피아노 5 중주, 목관 5 중주, 금관 5중주
	독주곡	푸가, 즉흥곡, 변주곡, 소나타, 모음곡, 성격 소품 등
성악곡	가곡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이탈리아 가곡
	극음악	오페라, 음악극, 오라토리오, 칸타타, 수난곡
종교음악	전례음악	미사, 레퀴엠, 코랄
	극음악	오라토리오, 칸타타, 수난곡
	합창음악	모테트
춤음악	춤모음곡, 발레음악, 민속 춤곡	

3) 국가 및 언어

작곡가의 출신 국가 및 작품이 작곡된 국가에 대해 파악하며, 성악곡일 경우 가사의 언어에 대해 파악한다.

4) 속하는 시대 및 음악사조

음악작품을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근대, 현대 및 민족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 등 속하는 시대 및 음악사조에 따라 분류한다.

2.2.3. 맥락화

맥락화의 교수·학습 내용은 작곡 시기, 속하는 음악 사조, 역사적·사회적 배경의 상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하위 내용을 서술하였다.

[표 9] 맥락화의 교수·학습 내용

상위 항목	교수·학습 내용
작곡 시기	작곡된 시기에 따른 시대적 상황 및 주요 역사적 사건을 알아본다.
속하는 음악 사조	고전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 등 속하는 음악 사조에 따른 음악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역사적·사회적 배경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작품에 미친 영향 및 작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작곡가의 생애	작곡가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작곡 당시 작곡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작곡가의 삶의 흐름에 따른 작품의 특징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본다.

2.2.4. 해명 및 해석

해명 및 해석의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기악곡과 성악곡을 포함하는 공통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표제음악과 성악곡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별도로 서술하였다.

1) 공통

- 작품의 주제 혹은 요지가 무엇인지
- 작곡가가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 작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 작품 또는 작품의 각 부분들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 음악 요소의 특징이 작품의 의미 또는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 작품의 맥락적 요소와 작품의 의도와의 연관성 파악하기

2) 표제음악의 경우

- 표제의 의미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지
- 음악에 함축된 은유 또는 상징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기
- 상징적 모티브의 의미와 배열에 대해 알아보기

3) 성악곡의 경우

- 가사와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기
- 가사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 가사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2.2.5. 분석

분석의 교수·학습 내용은 음악작품의 형식 분석과 음악 요소별 분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음악 요소별 분석은 ‘기술’에서 제시한 음악 요소의 하위 항목과 같이 선율, 화성, 리듬, 빠르기, 음색, 조성, 음계, 셈여림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교수·학습 내용을 서술하였다.

1) 음악작품의 형식 분석

소나타 형식, 변주곡 형식, 론도 형식, ABA 형식 등 음악작품의 형식에 대해 분석한다.

2) 음악 요소별 분석

[표 10] 음악 요소별 분석 교수·학습 내용

음악 요소	교수·학습 내용
선율	· 선율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선율의 진행과 변화에 따른 음악의 분위기와 느낌
화성	· 화성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사용된 화음과 화음 진행에 의한 음악의 분위기와 느낌 · 종지의 유형에 따른 음악의 분위기와 느낌
리듬	· 리듬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주요 리듬꼴 및 리듬의 변화를 통해 표출되는 음악적 표현 및 감정
빠르기	· 빠르기와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빠르기 및 빠르기의 변화를 통해 표출되는 음악적 표현 및 감정
음색	· 음색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음색에 의한 표현 효과 · 음색의 조화와 대비 그리고 음색의 변화에 의한 음악의 분위기와 느낌
조성	· 조성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조성에 따른 음악의 전반적인 분위기 · 조성의 변화에 의한 표현 효과
음계	· 음계와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사용된 음계가 자아내는 음악의 분위기
셈여림	· 셈여림과 다른 음악 요소들 및 전체 구조와의 관계 · 셈여림의 대비에 의한 음악적 표현 및 감정

2.2.6. 평가

평가의 교수·학습 내용은 개인의 인상, 표현의 효과성, 독창성, 맥락적 측면, 비교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하위 내용을 제시하였다.

1) 개인의 인상

- 작품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생각
- 작품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작품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2) 표현의 효과성

- 작곡가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 표제음악의 경우, 작품의 표제가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 성악곡의 경우, 가사가 음악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 작품의 주제 및 의도에 대한 표현성의 정도
-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 요소의 조화와 대비, 변화 등에 대한 질적 판단

3) 독창성

- 작품의 독특성 및 독창성
- 표현 방식 혹은 기법에 대한 새롭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나는지
- 다른 작품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요소가 있는지

4) 맥락적 측면

- 작품이 시대적 음악 사조와 연관하여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 작품이 작곡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또는 작곡가의 상황과 연관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 작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작품 또는 작곡가가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5) 비교

- 기술, 분류, 맥락화, 분석, 해석을 통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전에 배웠던 작품들과 비교하기
- 해당 작곡가의 다른 작품이나 비슷한 맥락의 작품들과 비교하기

3.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본 절에서는 앞서 구안한 노엘 캐럴의 음악 비평 모형과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악비평 모형은 음악 감상을 첫 단계로 하여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로 구성된다. 이 때,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비평의 본질인 평가에 대한 근거로서 뒷받침 된다. 또한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기능을 확립해 나가므로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여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에서의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단계적 과정이 아닌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이들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다. 단, 제시된 모든 내용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판단 하에 선택적,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재감상 및 부분 감상이 유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표로 나타내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학습단계	교수·학습 내용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음악 감상	제재곡 감상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 작품의 기본 정보, 연주 형태, 연주 장소에 대해 파악하기 •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 선율, 화성, 리듬, 빠르기, 음색, 조성, 음계, 셈여림에 대해 묘사하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 성악곡의 경우, 가사에 대해 이해하기	• 작품을 연주 형태, 장르, 국가 및 언어, 속하는 시대 및 음악 사조에 따라 분류하기	• 작곡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사건이 작곡가와 작품 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 속하는 음악 사조에 따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작품이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 작곡가의 삶과 관련하여 작품의 특징과 스타일 살펴보기	• 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작곡가의 의도에 대해 탐구하기 - 작품의 주제 혹은 요지, 작곡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 작품이 가지는 의미, 작품 또는 작품의 부분들에 내재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기술에서 파악한 음악 요소의 특징과 작품의 의미 또는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표제 음악의 경우, 표제의 의미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음악에 함축된 은유 또는 상징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성악곡의 경우, 가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작품의 맥락적 요소와 작품의 의도와의 연관성 파악하기 - 맥락화에서 파악한 작품의 맥락적 요소와 작곡가의 의도 및 작품의 의미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	• 작품의 형식 분석하기 • 음악 요소들 및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 기술에서 파악한 음악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생각해 본다. - 작품의 전체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음악 요소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음악 요소의 특징에 따른 작품의 분위기,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다.

평가	•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 작품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생각, 작품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작품이 본인에게 갖는 의미 - 작곡가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 작품 및 작곡가의 독창성과 개성, 표현 방식 또는 기법에 대한 새롭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드러나는지 - 작품의 역사적 가치, 작품 또는 작곡가가 후대에 미친 영향 - 기술, 분류, 맥락화, 분석, 해석을 통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기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다음 차시 수업 예고

V.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

본 장에서는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제재곡을 선정하여 앞의 장에서 구안한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및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1. 음악비평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음악 교과에서의 음악비평은 음악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평가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구현하며 타인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음악비평 활동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포함한 수업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언어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음악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46]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비평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비평적 사고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들이 음악과 관련된 소통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음악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음악비평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전략은 첫째, 적절한 악곡 선정, 둘째, 음악에 대한 친숙성 심어주기, 셋째, 개방형 질문 제공 및 수용적 태도, 넷째, 음악적 소통 및 공유의 장 조성하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1 적절한 악곡 선정

악곡 선정은 음악비평 수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정된 악곡은 학습 활동의 다양한 진입점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악곡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46] 박진홍(2018), 앞의 논문, p. 120.

첫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47] 교사는 악곡의 길이와 구조, 단순성 및 복잡성, 구체성 및 추상성 등을 파악한 후 학생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정도에 알맞은 악곡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악곡의 구성이 간결하고 형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사의 취향에 의한 선택보다는 학생들에게 익숙하며 보다 명료한 음악적 탐구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악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악곡들을 다룰 수 있으며 음악 요소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내재성을 띠며 이를 발굴해야 할 여지가 많은 악곡을 다룰 수 있다.

둘째, 대화할 소재가 많고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를 유발해야 한다. 학생들은 본격적인 비평 활동에 앞서, 음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관점의 다양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이다. 대화할 소재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악곡을 선정할 수록 의견 표현의 기회 및 타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48] 특히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를 유발하는 악곡은 학생들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이끌기 수월하다. 물론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과 질문 등에 의해서도 음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특색이 없는 악곡을 선정하는 것은 다소 단조로운 비평 수업 진행의 우려가 있으며 악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한 주체가 음악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그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어우러지기 마련이며 삶의 경험에 의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형성된다. 따라서 악곡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음악적 경험과의 상호 관계 및 관련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49]

---

[47] 민경훈, 정순영, 앞의 책, p. 228.
[48] Pamela Beach, Benjamin Bolden, “Music Education Meets Critical Literacy”, *Music Educators Journal*, 105(2), 2018, p. 46.
[49] Pamela Beach, Benjamin Bolden, 위의 논문 p. 45.

1.2. 음악에 대한 친숙성 심어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저 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따라가기 바쁠 것이다. 분별력을 가지고 음악을 감상하기보다는 새로움에 압도되어 작품의 주제만을 겨우 찾아낼 수도 있다. 생소한 음악을 듣고 주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변형되는지, 작품의 구조에 따른 각 부분이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 또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나 소리를 감상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음악에 대한 친숙성(familiarity)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50]

음악에 대한 친숙성은 먼저 반복적인 음악 감상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을 여러 번 접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음악의 구조에 따른 각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감적 태도를 갖춤으로써 비평 활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롯이 수업 시간만을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본 수업 전까지 제재곡을 미리 감상해보는 과제를 내줄 수 있으며,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제재곡을 틀어 놓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미리 접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와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과 관련한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며, 이는 음악 감상 및 비평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51]

단, 교사는 학생들이 친숙성에 의해 익숙해진 음악에만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고 이 또한 반복해서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친숙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

[50] Stolnitz, 앞의 책, p. 83.
[51] Pamela Beach, Benjamin Bolden, 앞의 논문, p. 54.

1.3. 개방형 질문 제공 및 수용적 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과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포괄한다. 학생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교사의 질문하기는 그들의 말문을 열게 하여 언어적 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보편적인 학습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 상태 확인 및 사고력 신장, 학습 동기 유발 등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된다.[52] 교사는 음악비평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여러 반응 및 비평적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 효과적인 질문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할까? 포고노프스키(L. Pogonowski)는 비평 수업을 진행할 때 답이 정해져 있는 단답형의 정보적 질문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53] 즉 교사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 질문은 반응을 위한 선택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이는 교사들이 흔히 던지는 정답 및 오답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폐쇄적 형태의 질문과는 달리 정해진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진다. '이 작품의 작곡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보다는 '이 작품의 작곡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과 같은 질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레나스(A. Arenas)는 성격에 따른 개방형 질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54] 첫 번째 유형은 분석적 개방형 질문으로 답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분석하도록 묻는 것이다. 원인을 들으려는 '왜 그런가?' 와 동기를 들으려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총합적 개방형 질문으로 관찰된 총 내용들에 대한 이유를 묻는 포괄적인 질문이다. '어떻게 되는가?' 라고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며 '어떻게 해서?' 라고 해결 과정을 묻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평가적 개방형 질문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 같이 감상자의 견해와 판단을 묻는 것이다.

---

[52] 박은주, "교사질문-학생반응 분석을 통한 교사질문전략 탐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2.
[53] Lenore Pogonowski, "Critical Thinking and Music Listening", *Music Educators Journal*, 76(1), 1989, p. 37.
[54] 박휘락, 앞의 책, p. 154.

이러한 질문들은 학생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태를 감수할 만큼 충분히 포용적인 교실의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비평의 결말에 답이 있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비평 수업의 길잡이가 되는 주요 원칙은 비평은 진행중인 토론이라는 것이다.[55] 교사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이 공유되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비평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용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56] 첫째, 모든 질문들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모든 질문에 알맞거나 적합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비평적 견해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인지하도록 하며 그것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한다. 셋째, 하나의 질문이 이와 연관된 질문들 혹은 토의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 혹은 이야기 거리들이 파생될 수 있다. 교사는 비평적 사고의 무한한 다양성을 유념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표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듭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4. 음악적 소통 및 공유의 장 조성하기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내면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음악적 사고를 엿볼 수 있으며 복합적인 사고와 정보를 수렴하여 본인의 음악적 판단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57] 따라서 음악비평 수업의 방식의 하나로 토론식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전체적인 학급 토론 수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조별 토론 수업을 계획할

---

[55] Terry Barret,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주은정 번역, 『미술비평: 비평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서울: 아트북스, 2021, p. 426.

[56] Pamela Beach, Benjamin Bolden, 앞의 논문, p. 45.

[57] Lenore Pogonowski, 앞의 논문, p. 38.

수도 있을 것이다. 제한된 수업 시간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학생들 개개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보다 많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부담감 또한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토론 수업의 발판을 마련하며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탐구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음악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수업 시작 혹은 끝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음악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형식을 갖춘 대화가 아닌, 편안함 속에 대화가 오고 감에 따라 학생들은 음악에 대해 반응하며,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악에 대한 가벼운 대화는 학생들을 음악적 탐구의 장으로 안내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운동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시도하여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적 소통을 일상화하고 향유해 나가는 면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

2.1. 제재곡 선정

14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수록된 악곡 중 기악곡 1곡과 성악곡 1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악곡으로는 스메타나(B. Smetana)의 "나의 조국(Má vlast)"중 '몰다우(Moldau)'를, 성악곡으로는 쇤베르크(A. Schönberg)의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를 선정하였다.

'몰다우'는 6곡으로 구성된 교향시 "나의 조국" 중 가장 널리 연주되고, 알려진 곡이다. 또한 14종의 교과서 중 10종에 수록되어 있어 교과서에 제시된 빈도수가 높은 곡임을 알 수 있다. '몰다우'라는 표제 및 스메타나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표제와 관련한 작곡가의 의도 및 음악 요소에 의한 표현적 특성, 음악사적 배경, 작곡가의 생애 등 다양한 관점에 의한 비평적 접근이 가능한 기악곡이라고 판단되었다.

"달에 홀린 피에로"는 20세기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지만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음악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58] 그럼에도 이 곡의 생소한 기법적 측면 및 가사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생각할 거리와 대화 소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현주의 운동의 영향과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맥락 등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다각도의 비평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달에 홀린 피에로"의 21곡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Mondestrunken)'를 선정하여 제재곡으로 사용하였다.

2.2. 제재곡에 대한 고찰

2.2.1.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가 1874 년에서 1879 년에 걸쳐 작곡한 6곡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 2곡에 해당하며 조그만 샘물이 모여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는 과정을 묘사함으로 체코의 유구한 역사를

[58] 오희숙,『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파주: 음악세계, 2009, p. 9.

찬양한 곡이다.[59] 제목에서부터 민족주의적 색채가 확연히 드러나는 "나의 조국"은 체코의 자연과 건축물, 역사적 인물과 전설 등을 소재로 하는 전형적인 표제음악으로, 스메타나가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아 작곡한 작품이며 프라하시에 헌정되었다.[60]

6 곡의 교향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몰다우(Moldau)'는 독일식 명칭이며, 원곡은 체코어 '블타바(Vltava)'로 표기한다. 몰다우는 체코 서부의 보헤미아의 산맥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프라하 시가를 관통하여 독일의 엘베강과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몰다우'라는 제목은 작품을 아우르는 상징이 된다. 스메타나는 총보에 다음과 같은 표제를 덧붙여 작품의 의도와 흐름을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작품에서는 7 개의 주제 선율이 등장한다.[61]

'두 개의 샘이 보헤미아의 숲 속 그늘진 곳에서 솟아난다. 보헤미아의 골짜기로 흘러가면서 그것은 큰 개울이 된다. 사냥하는 즐거운 소리와 더욱 가까워지는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것은 깊은 숲 속을 지나 흐른다. 푸른 초원을 지나고, 춤과 노래로 경축하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농가를 지난다. 밤에는 숲과 물의 요정들이 그 반짝이는 물결을 즐긴다. 강은 계속 흘러가서 성 요한의 급류를 거치고, 드디어 웅대한 모습으로 프라하로 흘러 들어 비셰흐라드(Vysehrad, 고대 보헤미아 왕들의 전설적인 성)의 환영을 받는다. 그리고는 시인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62]

스메타나는 1824 년 체코 보헤미아에서 태어났으며,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작곡가였을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지휘자, 비평가였으며 스스로를 체코 민족음악의 창시자라고 일컬었다.[63] 당시의 체코는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놓여있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혁명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스메타나는 체코의 민족주의자로 거듭나게 되며, "나의 조국"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곡이다. "나의 조국"의 작곡을 시작했던 1874 년 50 세의 스메타나는 체코의 국민음악가로 확고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무렵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하며 "나의

---

[59] 민은기, 『클래식 수업』, 서울: 사회평론, 2018-2021, p. 317.
[60] 문학수, 『더 클래식』, 파주: 돌베개, 2014-2016, p. 250.
[61] Joseph Machlis, *Enjoyment of music: an introduction to perceptive listening*, 신금선 번역, 『음악의 즐거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p. 198-199.
[62] Joseph Machlis, 앞의 책, p. 197.
[63] 문학수, 앞의 책, p. 245.

조국"이라는 걸작을 완성하였다.[64] 이후 그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악화로 1884 년에 생을 마감했다.

2.2.2.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

1912년에 작곡된 "달에 홀린 피에로" 는 쇤베르크의 초기 걸작이자 20세기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3부로 구성되며 총 21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이다. 이 곡은 벨기에의 시인 지로(A. Giraud)의 연작시를 하르트레벤(O. Hartleben)이 번역한 것 중 21편을 가사로 사용하였다.

제 1곡 '달에 취하여' 는 달을 향해 서서 달빛이 내려 쏟는 술을 눈으로 마시겠다는 시인을 묘사한다. 이 시에서 언급되는 '술'은 진짜 술이 아니라 '달빛'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마신다' 와 '본다' 라는 동사를 하나의 의미로 묶어 사용하는 낭만주의적 공감각이 드러난다.[65] '달에 취하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Mondestrunken]	[달에 취하여]
Den Wein, den man mit Augen trinkt. Giesst Nachts der Mond in Wogen nieder, Und eine Springflut über schwemmt, Den stillen Horizont.	눈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달은 밤새 파도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높은 파도가 고요한 수평선을 가득 넘치게 한다.
Gelüste, Schauerlich und süss, Durchschwimmen ohne Zahl die Fluten! Den Wein, den man mit Augen trinkt, Giesst Nachts der Mond in Wogen nieder.	무섭고도 달콤한 욕망은 수 없이 물결을 가로질러 흐른다! 눈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달은 밤새 파도에 쏟아 붓는다.
Der Dichter, den die Andacht treibt, Barauscht sich an dem heiligen Tranke, Gen Himmel wendet er verzückt. Das Haupt und taumelnd saugt und schlürft er Den Wein, den man mit Augen trinkt.	예배 드리는 시인은 신성한 취함에 도취되고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 기뻐 날뛴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마시고 질질 끈다. 눈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달에 홀린 피에로'는 전통적 성악기법에서 벗어난 '말하는 선율(Sprechstimme)' 즉, '반은 노래하고 반은 말하는' 성악기법을 사용한다는 독특한 음악적 특성을 갖는다. 이는 음표를 통해 주어진

---

[64] 민은기, 앞의 책, p. 317.
[65] 오희숙, 앞의 책, pp. 92-93.

선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며 표시된 음높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말하는 선율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주자는 리듬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음높이를 유지하지만 '노래하는 듯한' 말하는 방식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연주 방식은 최초 출판 악보의 서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달에 홀린 피에로'는 말하는 선율과 함께 다양한 소규모 앙상블이 배합되는데, 제 1 곡의 앙상블은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의 악기 편성을 갖는다.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은 조성 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중심 조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무조성이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66] 쇤베르크는 전통적 조성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3 화음 중심의 악곡 구성에서 벗어나 12 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불협화음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신비하고 괴상한 텍스트와 무조적 불협화음으로 어우러진 '달에 홀린 피에로'는 전통적인 음악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과 형식을 드러내며, 이는 쇤베르크의 표현주의 예술 경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표현주의는 1910 년을 전후로 미술에서 시작한 새로운 예술 사조로, 20 세기 초반 당시 현대인들의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 반항감 등의 내면적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자 하였다. 쇤베르크는 이러한 표현주의적 경향을 적용하여 무조음악을 탄생시킨 것이다.

제 2 비엔나악파의 아버지이자 무조음악의 창시자인 쇤베르크는 유태인 출신으로 1874 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독학으로 음악을 습득할 만큼 재능이 뛰어났고 음악가 뿐만 아니라 화가, 교육자, 이론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쇤베르크는 당시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인 칸딘스키(W. Kandinsky)와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회화에서의 표현주의는 그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67] 그는 1 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기를 가졌고, 이후 '12 음 기법'을 고안함으로써 새로운 작곡 기법을 탄생시키며 당대 음악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런데 쇤베르크는 1933 년, 나치에 의한 반유대 정치로 인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며 작곡가와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건강 악화로 1951 년 생을 마감하였다.

---

[66] 오희숙, 앞의 책, p. 47.
[67] 오희숙, 앞의 책, pp. 84-85.

2.3.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선정된 2 개의 제재곡에 대한 각각의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학습단계	교수·학습 내용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음악 감상	“나의 조국” 중 제 2곡 ‘몰다우’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 작곡가와 작품의 제목, 작곡 시기, 연주 형태 및 연주 장소를 파악하기 • 주제 선율 파악하기	• 작품을 연주 형태, 장르, 국가, 음악 사조에 따라 분류하기	• 작품이 작곡될 당시 체코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스메타나와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 민족주의 음악 사조에 따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스메타나의 출생과 삶, 그리고 작품의 작곡 시기에 따른 스메타나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 스메타나가 총보에 덧붙인 표제와 7개의 주제 선율을 연관 짓기 - 표제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 작품의 맥락적 요소와 연관하여 스메타나의 의도 및 작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 교향시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제음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평가	•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 작품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생각 - 작품의 표제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스메타나의 상황과 연관하여 작품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인지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다음 차시 수업 예고

2.3.2.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표13]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

학습단계	교수·학습 내용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음악 감상	“달에 홀린 피에로”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 작곡가와 작품의 제목, 작곡 시기, 연주 형태 및 연주 장소를 파악하기 • 독일어 가사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 작품의 선율에 대해 파악하기 - 말하는 선율 • 작품의 조성과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화성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 무조성과 불협화음	• 작품을 연주 형태, 장르, 언어, 속하는 시대 및 음악 사조에 따라 분류하기	• 20세기 초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 표현주의 사조에 따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표현주의의 개념과 칸딘스키의 그림과 연관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특징을 살펴본다.	• 작품에 내재된 쇤베르크의 의도를 맥락적 요소와 관련하여 탐구하기 - 작품에 등장하는 무조성, 불협화음, 말하는 선율의 특징을 표현주의 사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	• 작품의 구조 분석하기 • 음악 요소들과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 무조성과 불협화음, 말하는 선율에 의한 작품의 분위기와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다.

평가	•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 작품에 사용된 기법 또는 표현 방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연관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 보기 - 작품이 표현주의 사조와 연관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다음 차시 수업 예고

2.4.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 제시

앞서 제시한 단계별 음악비평 지도 계획을 적용하여, 제재곡 2 곡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각 2 차시의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으며, '평가' 단계의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2.4.1.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수업 지도안

1) 1 차시 수업 지도안

[표 14]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1 차시 수업 지도안

<table>
<tr><td>제재곡</td><td colspan="2">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제 2 곡 '몰다우'</td><td>대상</td><td>중학교급</td><td>차시</td><td>1/2</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6">1.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을 역사적·문화적 맥락, 그리고 작곡가의 삶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민족주의 음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td></tr>
<tr><td>학습
자료</td><td colspan="6">수업 관련 PPT 자료, 제재곡 영상, 음원, 사진 자료 등</td></tr>
<tr><td>학습
단계</td><td>학습 과정</td><td colspan="2">교수·학습 내용</td><td colspan="3">자료 및 유의점</td></tr>
<tr><td rowspan="2">도입</td><td>동기유발</td><td colspan="2">▣ 체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 체코를 대표하는 사진들과 국기를 보고, 어떤 국가인지 유추해 본다.
- 체코에 대해 아는 것이나 여행 경험 등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 체코 출신 작곡가의 음악에 대해 배울 것임을 예고한다.</td><td colspan="3" rowspan="2">사진 및 관련 PPT 자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td></tr>
<tr><td>학습목표
제시</td><td colspan="2">▣ 제재곡 및 학습목표 확인</td></tr>
<tr><td>음악
감상</td><td>제재곡
감상</td><td colspan="2">▣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제 2 곡 '몰다우' 감상하기</td><td colspan="3">제재곡 음원 또는
연주 영상</td></tr>
</table>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기술	▣ 작곡가와 작품의 제목, 작곡 시기, 연주 형태와 장소를 파악하기 -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 제목: “나의 조국” 중 제 2 곡 ‘몰다우’ - 연주 형태: 기악곡, 합주 - 작곡 시기: 1874 년~1879 년 - 연주 장소: 음반 및 영상에 따라 상이함	
	분류	▣ 국가, 음악 사조에 따라 분류하기 - 국가: 체코 - 음악 사조: 민족주의	
	맥락화	▣ 민족주의 음악 사조에 따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19 세기 전반 유럽의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본다. - 19 세기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과 연관하여 민족주의 음악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민족주의 음악 19세기는 유럽의 민족주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지에서 활발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183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은 다른 지역의 민족적 애국심을 자극하였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열망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민족주의 음악은 19세기 중엽에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나타났으며, 각 나라 고유의 전설과 민요, 자연 등 민족적 특색을 소재로 사용하여 음악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맥락화	▣ 제재곡이 작곡될 당시 체코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며, 스메타나와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관련 PPT 자료

		당시의 체코는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183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체코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스메타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체코의 혁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스메타나가 자신의 음악 작품에 애국심과 민족성을 부여하며 민족주의 작곡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 "나의 조국"은 체코의 자연과 건축물, 전설 등을 소재로 하며, 제목에서부터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 몰다우 강의 사진 혹은 영상을 보며, 제재곡이 체코에 흐르는 몰다우강을 소재로 작곡된 곡임을 파악한다.	몰다우 강의 사진 혹은 영상 자료
	맥락화	▣ 스메타나의 출생과 삶, 그리고 작품의 작곡 시기에 따른 스메타나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1824년 체코 보헤미아에서 태어났다.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접하였으며 작곡가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지휘자, 비평가로도 활동하였다. "나의 조국"을 작곡했던 1874년 50세의 스메타나는 체코의 국민음악가로서 확고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무렵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며 "나의 조국"을 완성하였다. 이후 그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악화로 1884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스메타나의 사진 및 관련 PPT 자료
	해명과 해석	▣ 작품의 맥락적 요소와 연관하여 스메타나의 의도 및 작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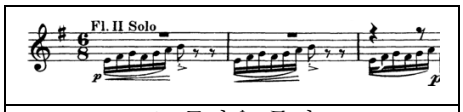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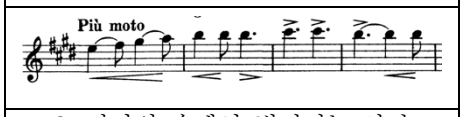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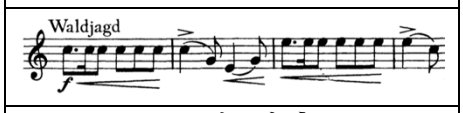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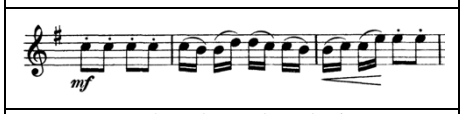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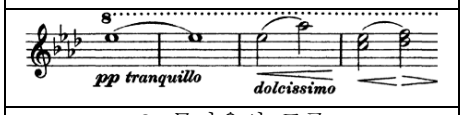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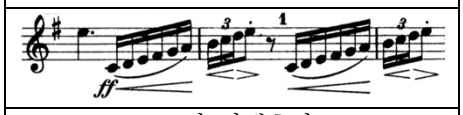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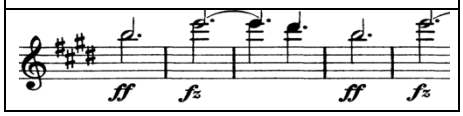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 제재곡을 역사적·문화적 맥락 그리고 작곡가의 삶과 연관하여 이해하기	.
	다음 차시 수업 예고	▣ 다음 차시 학습 과정 예고	.

2) 2 차시 수업 지도안

[표 15]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2 차시 수업 지도안

제재곡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제 2 곡 ‘몰다우’		대상	중학교급	차시	2/2
학습 목표	1. 표제음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제재곡의 표제와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3. 제재곡을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수업 관련 PPT 자료, 제재곡 영상, 음원, 사진 자료 등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 전 차시 수업 내용 확인 - 제재곡의 기본 정보와 민족주의 음악에 대한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을 통해 전 차시 수업내용을 복습한다. ▣ 몰다우 강의 모습 감상하기 - 전 차시 수업에서 보았던 몰다우 강의 모습을 상기하며 다시 감상한다. - 몰다우(Moldau)는 독일식 명칭이며, 원곡은 체고어인 ‘블타바(Vltava)’로 표기함을 파악한다.		전 차시 수업 내용 복습을 위한 PPT 자료 몰다우 강의 사진 또는 영상을 제시한 PPT 자료		
	학습목표 제시	▣ 제재곡 및 학습목표 확인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분류	▣ 제재곡을 연주 형태, 장르에 따라 분류하기 - 연주 형태: 관현악 합주 - 장르: 교향시	
	분석	▣ 교향시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교향시는 음악과 문학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시적 내용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되는 표제음악의 일종임을 이해한다.	
	분석	▣ 제재곡에서 드러나는 표제음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표제음악의 개념 이해하기 - 스메타나가 총보에 덧붙인 표제를 함께 읽어보고, 작품이 몰다우 강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두 개의 샘이 보헤미아의 숲 속 그늘진 곳에서 솟아난다. 보헤미아의 골짜기로 흘러가면서 그것은 큰 개울이 된다. 사냥하는 즐거운 소리와 더욱 가까워지는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것은 깊은 숲 속을 지나 흐른다. 푸른 초원을 지나고, 춤과 노래로 경축하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농가를 지난다. 밤에는 숲과 물의 요정들이 그 반짝이는 물결을 즐긴다. 강은 계속 흘러가서 성 요한의 급류를 거치고, 드디어 웅대한 모습으로 프라하로 흘러 들어 비셰흐라드(Vysehrad, 고대 보헤미아 왕들의 전설적인 성)의 환영을 받는다. 그리고는 시인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	‘몰다우’의 표제를 제시한 PPT 자료
	해명과 해석	▣ 스메타나가 총보에 덧붙인 표제와 7개의 주제 선율을 연관 짓기 - 제재곡을 감상하며 표제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1. 몰다우 강의 2개의 물줄기	제재곡 음원 및 관련 PPT 자료

		 2. 몰다우 주제  3. 강가의 숲에서 벌어지는 사냥  4. 농부들의 춤  5. 달빛과 요정들의 춤  6. 몰다우의 급류  7. 고성 비셰흐라드 	
평가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평문을 작성해 본다. 1. 작품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생각 2. 작품의 표제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3.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스메타나의 상황과 연관하여 작품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인지	학생들이 가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꼭 제시하도록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작성 시간을 준다.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 제재곡의 표제와 음악적 표현을 연관하여 이해하기 ▣ 제재곡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근거에 대해 제시하기	.

	다음 차시 수업 예고	▣ 비평문 작성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의 경우 다음 수업 시간까지 제출하기 ▣ 다음 학습 과정 예고	기한 내 제출 권고

3) 비평문 작성에 대한 평가 기준

[표 16] 비평문 작성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척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1)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2)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포함한 글을 작성하였는가?			
3)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4)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5) 비평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2.4.2.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 수업 지도안

1) 1 차시 수업 지도안

[표 17]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 1 차시 수업 지도안

<table>
<tr><td>제재곡</td><td colspan="2">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td><td>대상</td><td>중학교급</td><td>차시</td><td>1/2</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6">1. 제재곡의 가사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2. 제재곡의 구성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td></tr>
<tr><td>학습
단계</td><td>학습 과정</td><td colspan="2">교수·학습 내용</td><td colspan="3">자료 및 유의점</td></tr>
<tr><td rowspan="2">도입</td><td>동기유발</td><td colspan="2">▣ 쇤베르크의 “3 개의 피아노모음곡(Drei Klavierstücke, Op. 11)” 중 3 번을 듣고 느낌 공유하기
- 악곡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 이전에 배웠던 조성음악을 상기시키며, 이와는 상반된 음악에 대해 배울 것임을 예고한다.</td><td colspan="3" rowspan="2">“3 개의 피아노 모음곡” 중 3 번 음원 또는 연주영상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td></tr>
<tr><td>학습목표
제시</td><td colspan="2">▣ 제재곡 및 학습목표 확인</td></tr>
<tr><td>음악
감상</td><td>제재곡
감상</td><td colspan="2">▣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감상하기</td><td colspan="3">제재곡 음원 또는
연주 영상</td></tr>
<tr><td>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td><td>기술

분류

기술</td><td colspan="2">▣ 작곡가와 작품의 제목, 연주 형태와 연주 장소에 대해 파악하기
- 작곡가: 아놀드 쇤베르크
- 작품의 제목: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 달에 취하여’
- 연주 형태: 성악, 독창
- 연주 장소: 음반 및 영상에 따라 상이함

▣ 세부적 연주 형태와 장르, 언어에 따라 분류하기
- 연주 형태: 여성 독창과 앙상블(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 장르: 성악곡
- 언어: 독일어

▣ 가사와 말하는 선율에 대해 이해하기</td><td colspan="3"></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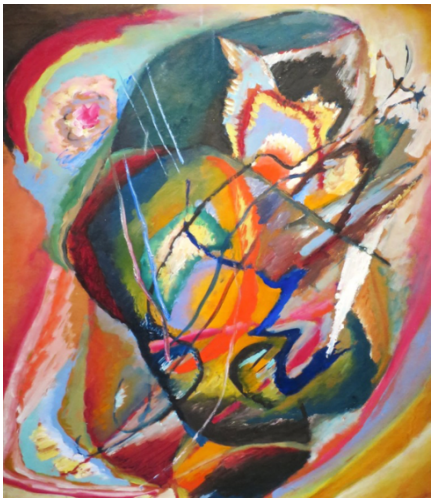
		-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를 읽어보며, 가사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 가사의 내용을 상기하며 제재곡을 재감상 한다. - 말하는 선율의 특징과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말로 번역한 가사를 제시한 PPT 자료와 함께 재감상한다.
	분석	▣ 제재곡의 구조 분석하기 - 3 연으로 구성된 가사에 따른 세 부분 형식	
	기술	▣ 제재곡의 조성과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화성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 슈만의 "헌정(Widmung, Op. 25-1)" 을 듣고, 제재곡과 어떠한 점이 대비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 무조성 및 무조음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비교해보며, 불협화음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헌정" 음원 또는 연주영상 화성의 조화와 어울림에 대해 비교하며 들어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분석	▣ 제재곡의 음악 요소들과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무조성과 불협화음, 말하는 선율에 의한 작품의 분위기와 느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학급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며,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한다.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 제재곡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제재곡의 구성 요소에 따른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	.
	다음 차시 수업 예고	▣ 다음 차시 학습 과정 예고	.

2) 2 차시 수업 지도안

[표 18]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 2 차시 수업 지도안

제재곡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 1곡 ‘달에 취하여’	대상	중학교급	차시	2/2
학습 목표	1.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을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표현주의 음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제재곡을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수업 관련 PPT 자료, 제재곡 영상, 음원, 그림 자료 등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 전 차시 수업 내용 확인 - 제재곡의 기본 정보와 구성 요소에 대한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을 통해 전 차시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전 차시 수업 내용 복습을 위한 PPT 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 확인	
순환적 음악비평의 과정	기술	▣ 제재곡의 작곡 시기에 대해 파악하기 - 작곡 시기: 1912년	20세기 초반 유럽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 및 관련 PPT 자료
	맥락화	▣ 20세기 초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 1904년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유럽 일대가 불안과 혼란 속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사람들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예술로써 표출하기 시작한다.	
	분류	▣ 제재곡의 속하는 시대 및 음악 사조에 대해 알아보기 - 속하는 시대: 현대 - 음악 사조: 표현주의	
	맥락화	▣ 표현주의 사조에 따른 제재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20세기 초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과 연관하여 표현주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1910년을 전후로 미술에서 시작한 새로운 예술 사조로, 20세기 초반 당시 현대인들의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 등의 내면적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미술에서 비롯된 표현주의는 음악, 문학, 건축 등 예술의 각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 대표적 표현주의 화가인 칸딘스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그림1] 칸딘스키, <검은 아치와 함께, 1912> [그림2] 칸딘스키, <무제, 인상 III, 1914> 	칸딘스키의 작품을 제시한 PPT 자료

	해명과 해석	- 제재곡을 재감상 하며, 위에서 살펴본 표현주의의 특징과 연관하여 제재곡의 분위기와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작품에 내재된 쇤베르크의 의도를 맥락적 요소와 관련하여 탐구하기 - 작품에 등장하는 무조성, 불협화음, 말하는 선율의 특징을 표현주의 사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	제재곡 음원 또는 연주영상 교사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 다음과 같은 주제로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조별로 선정된 대표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토론 주제 1. 작품에 사용된 기법 또는 표현 방식은 새롭거나 창의적인가? 혹은 듣기에 거북하고 생소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연관하여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해 보자. 2. 표현주의 사조와 연관하여 작품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가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꼭 제시하도록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용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만약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 발표는 다음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
마무리	수업 성찰 및 정리	▣ 제재곡을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이해하기 ▣ 제재곡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근거에 대해 제시하기	.
	다음 차시 수업 예고	▣ 다음 학습 과정 예고	.

3) 그룹 토론에 대한 평가 기준

[표 19] 그룹 토론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척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1)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2) 토론 주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3)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4)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5) 가치 평가에 대한 관점과 근거를 종합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VI.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중학교급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비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학습 활동 또한 실제적인 비평 활동을 유발하기 보다는 감상 활동에 대한 연장선으로써 음악에 대한 느낌 혹은 소감을 요구하거나 작품의 맥락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평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음악비평 교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학, 미술과 같은 타 교과에 비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다방면의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랜 시간 적용되어온 펠트만(E. Feldman)의 미술비평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펠트만의 비평 단계는 각각 독립된 단계들의 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획일적인 비평 사고 과정을 유발할 여지를 갖는다. 따라서 새롭고 유의미한 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육 연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음악비평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및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에 따른 예술비평 이론에 대해 탐색하였다.

둘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비평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비평 수업의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비평 활동이 음악 감상과 함께 제시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의 비평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만으로 적극적인 비평 교수를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음악비평 수업 방안에 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예술 철학자이자 현역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엘 캐럴(N. Carroll)의 예술비평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캐럴이 제시하는 비평이론은 비평의 본질 및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폭넓게 다루며 비평의 구성 요소들을 명료히 제시한다는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택하였다. 캐럴은 예술비평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들을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를 포함한 여섯 가지 비평의 부분들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을 음악 비평에 상응하도록 재해석하고 각각의 기능과 상호 관계에 대해 고찰하여 음악비평 모형을 구안하였다.

넷째, 구안한 음악비평 모형을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을 구상하였다. 앞서 음악비평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캐럴의 여섯 가지 비평의 범주들에 대한 각각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및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수용하고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참조하여 중학교급에 따른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음악비평 교수·학습 계획을 제시하여 비평 교수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도입, 음악 감상,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 평가, 마무리의 학습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때 기술, 분류, 맥락화, 해명과 해석, 분석은 단계적 과정이 아닌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이들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다.

다섯째, 음악비평 수업의 실제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비평 수업을 위한 제재곡을 선정하여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및 단계별 교수·학습 계획을 적용한 수업 지도안을 구상하였다. 14 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수록된 악곡 중 기악곡과 성악곡을 각각 1 곡씩 선정하였는데, 기악곡으로는 스메타나(B. Smetana)의 “나의 조국(Má vlast)” 중 ‘몰다우(Moldau)’를, 성악곡으로는 쇤베르크(A. Schönberg)의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 중 제 1 곡 ‘달에 취하여’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재곡으로 하는 각각의 음악비평 수업 지도안을 구상하여 음악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남기며 마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중 서양 음악의 범주에 한정하여 그 특징에 따른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악과 대중음악, 세계음악 등 다양한 문화권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고려한 비평 수업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앞으로 고시될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반 사항에 따른 후속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구상한 음악비평 교수·학습 내용 및 단계별 음악비평 교수·학습 계획을 적용한 수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습의 결과와 만족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분석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및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한 음악비평 교수·학습 방안을 보다 효용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권덕원 외.『음악 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2017.

문학수.『더 클래식』. 파주: 돌베개, 2014-2016.

민경훈. 정순영.『음악 감상과 비평의 이론과 실제』. 고양: 어가, 2022.

민은기.『클래식 수업』. 서울: 사회평론, 2018-2021.

박휘락.『미술감상과 비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2002.

오희숙.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파주: 음악세계, 2009.

음악미학연구회.『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하지 않는가』. 오희숙, 이혜진 책임편집, 파주: 음악세계, 2018.

이해완.『노엘 캐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홍정수 외.『음악학』. 서울: 심설당, 2004

Aschenbrenner, Karl. *The concepts of criticism*. Dordrecht,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4.

Barret, Terry.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주은정 번역.『미술비평: 비평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서울: 아트북스, 2021.

Braun, Werner. *Musikkritik*. 대학음악저작연구회 번역. 『음악비평』. 서울: 삼호출판사, 1991.

Carroll, Noël. *On criticism*. 이해완 번역. 『비평철학』. 성남: 북코리아, 2015.

Feldman, Edmund Burke. *Becoming human through art: 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0.

Hanslick, Eduard. *Vom Musikalisch-Schönen: ein Beitrag zur Revision der Ästhetik der Tonkunst*. 이미경 번역.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울: 책세상, 2018.

Machlis, Joseph. *The enjoyment of music: an introduction to perceptive listening*. 신금선 번역. 『음악의 즐거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Stolnitz, Jerome.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a critical introduction*. 오병남 번역.『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Tyson, Lois.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 윤동구 번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신비평부터 퀴어비평까지』. 서울: 엘피, 2012.

2. 학위논문

권기현. “음악 비평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5 · 6 학년 음악 감상 지도”.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도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 지도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정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 비평 지도 방법 연구”.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남정은.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음악비평 학습지도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박은주. “교사질문-학생반응 분석을 통한 교사질문전략 탐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현경. “수용미학에 근거한 음악 비평 지도 방안”.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홍지은.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음악비평활동 지도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학술논문

김창식.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7, 1999.

박진홍. “음악비평의 교육적 의의와 학습 방법 연구”.『음악응용연구』, 3, 2007.

_____. “음악비평 활동을 통한 음악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응용연구』, 2, 2009.

_____. “음악 교과에서 음악 비평 활동의 적용 영역”. 『음악응용연구』, 37, 2018.

이보림.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한국음악교육학회』, 47, 2018.
Beach, P. and Bolden, B. “Music Education Meets Critical Literacy”. *Music Educators Journal*, 105(2), 2018.
Pogonowski, Lenore, “Critical Thinking and Music Listening”. *Music Educators Journal,* 76(1), 1989.

4.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2], 2015.
고영신 외 7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교학사, 2018.
김광옥 외 5 인. 『중학교 음악 1,2』, 파주: ㈜아침나라, 2018.
민경훈 외 5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동아출판사, 2018.
박준영 외 6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와이비엠, 2018.
양종모 외 7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음악과 생활, 2018.
장기범 외 6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미래엔, 2018.
정길선 외 5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지학사, 2018.
정욱희 외 4 인. 『중학교 음악 1,2』, 파주: 성안당, 2018.
조대현 외 6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다락원, 2018.
주광식 외 2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박영사, 2018.
주대창 외 3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비상교육, 2018.
최은식 외 6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천재, 2018.
허화병 외 3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018.
현경실 외 4 인. 『중학교 음악 1,2』, 서울: ㈜금성 출판사, 2018.

Abstract

A Study on Teaching-Learning Method of Music Criticism in Middle School based on Noël Carroll's Criticism Theory

Hyung Eun Moon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rm 'criticism' has first appeared in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Since then, the importance of 'criticism education' within the public music education curriculum has rose to the surface. However, the current music curriculum lacks detailed contents related to music criticism and is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in presenting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In particular, unlike the advanced music curriculum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Korean high schools, middle school music classes do not have subjects or materials that solely focus on music criticism. Besides, most music textbooks that are used in middle schools are centered around passive criticism activities (i.e., simple music listening activities, revie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various musical works, et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actical and detailed music criticism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middle school.

Among various theories, this study was based on Noel Carroll's theory on art criticism. Carroll's theory has significant value regarding that it deals with the nature and concepts of art criticism with great

insight based on an analytic approach, clearly presenting the key components of 'criticism'. Also, the components presented by Carroll are not implemented independently but forms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may limit the spectrum of critical thinking.

Based on this,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educational value, and necessity of music criticism were studied, while exploring different theories related to music criticism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various scholars. Second, by examining the key concepts and contents of music criticism that has been specified in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this study has focused on identifying the educational validity and importance of music criticism classes while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music criticism activities that are being conducted in Korean middle schools. Third, by taking a deeper dive into Noel Carroll's theory of 'Art Criticism', a new music criticism model has been designed. Regarding the processes that are required for art criticism, Carroll presented six different categories, which are 'Description', 'Classification', 'Contextualization', 'Elucidation & Interpret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In this study, these six categories have been reinterpreted so it can be implemented to the field of music criticism, and a music criticism model has been derived from considering each categ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Fourth, based on the designed music criticism model, a teaching-learning content for teaching music criticism to middle school students has been developed. In addition, based on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content, a step-by-step music criticism guidance is presented to systematize the contents of the teaching. Finally, a detailed role for the teachers who actually participate in music criticism classes has been presented along with a list of songs that can be used for the classes. The list of songs includes 'Moldau' from "Má vlast" (B. Smetana), and 'Mondestrunken' from "Pierrot Lunaire" (A. Schönberg), and a detailed

music class plan for each song is also presented so it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in the actual field.

Music criticism education has immense educational value in that it allows learner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aesthetic value of music, also helping them to cultivate the ability to use music as a medium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hare their musical experiences. I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 criticism classes and encourage future attempts to find and develop new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field of music education.

Keywords : Music Criticism, Music Education, Music Criticism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Criticism Model
Student Number : 2020-20244